화성사람 이야기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
정조대왕을 읽다 정조, 수원으로 아버지 묘소를 옮기다
역사바로알기 미국교과서 속의 신라
학술세미나 화성지역의 3.1운동과 유적답사, 증언록
순간의 느낌 화성, 나의 살던 고향은

문화의 뜰
정기간행물 경기 바 00071호
1994년 7·8월호 재창간
2008년 7월 1일 발행
통권 제 57호
화성문화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문화의 뜰

여름

Vol. 57



춤

첫 비행이 죽음이 될 수 있으나, 어린 송골매는
절벽의 꽃을 따는 것으로 비행연습을 한다.

근육은 날자마자
고독으로 오므라든다

날개 밑에 부풀어 오르는 하늘과
전율 사이
꽃이 거기 있어서

絶海孤島,
내려 꽂혔다
솟구친다
근육이 오므라졌다
펴지는 이 쾌감

살을 상상하는 동안
발톱이 점점 바람무늬로 뒤덮인다
발아래 움켜쥔 고독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서

상공에 날개를 활짝 펴고
외침이 절해를 찢어놓으며
서녘 하늘에 날라다 퍼낸 꽃물이 몇 동이일까

천길 절벽 아래

꽃파도가 인다



박형준(朴瀅俊)

1966년 전북 정읍 출생.
1987년 서울예전 문예창작과 졸업.
199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가구(家具)의 힘」이 당선되어 등단.
1994년 첫시집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 하련다』 간행 이후
『평년사를 풍기는 거울』(1997) 『물속까지 입사귀라 피어 있다』등이 있음.
제15회 동서문학상 수상.
1996년 제1회 공초시문학상 수상.

Vol. 57 여름호

문화의 뜰



미륵불
(위치 : 동탄면 오산리 855-3 문화재지정 : 미지정)
동탄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이 마을에 전해 오는 마을사람의 이야기와 화성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마을 뒷산인 미륵산 모양이 자라처럼 생겼고 자라의 머리 위치에 미륵불이 있어서 미륵동 혹은 미륵뎅이, 미력동이라고 불렀단다. 미륵불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지금도 우뚝 서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확한 조성연대(조선시대로 추정)나 설화 등은 알 수 없다.

문화의 뜰
등권 제 57호 정기간행물 경기 바 00071호 발행일 2009년 7월 1일 발행 발행처 화성문화원 발행인 기봉서
편집인 홍영덕 · 김숙이 주소 445-92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전화 031-353-6330 팩스 031-353-6331
홈페이지 www.hscc.or.kr
Design by 창커뮤니케이션 전화 02-333-1967
표지사진 : 김기훈(경기도 사진대전 초대작가) 미륵불

Contents

01 초대시 춤 _박형준

04 원장칼럼 목민심서(牧民心書)

06 삶의 지혜 식구(食口)들이여 밥 좀 먹읍시다 _송명오

08 화성사람 이야기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 _박수현

10 정조대왕을 읽다 정조, 수원으로 아버지 묘소를 옮기다 _김준혁

18 역사바로알기 미국교과서 속의 신라 _이갑상

24 화성의 민속 비봉면 유포리 당굴말의 당제사 _김용국

30 서예이야기 筆法 _이영재

33 순간의 느낌 화성, 나의 살던 고향은 - 중리, 청계리 _김기훈

36 영상수필 _황금모

38 작가초대석 _이채휴 · 박영자

40 난파동요제

44 문화원소식

49 문학동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_김민웅

54 학술세미나 화성지역의 3.1운동과 유적답사, 증언록 _박환

66 체험학습 용룡 · 건릉, 용주사 체험학습을 마치고 _청룡초등학교 · 병점중학교

70 이 한권의 책 유교는 아시아의 힘

74 수필 자연과 인간의 상관성으로 알아본 풍수의 신비 _이상인

77 회비 납부현황

80 문화원에서 하는 일









목민심서牧民心書



고병서
화성문화원장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에 의하여 조선후기 사회실태와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지방관리의 행정에 대한 지침을 담은 목민서이다. 정약용이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유배당한 이후 천라도 강진에서의 귀양살이 마지막 무렵인 1818년에 완성하였으니, 그가 학문적으로 원숙해가던 때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서술이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에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그의 저서는 크게 경집과 문집으로 구분된다.

경집에는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경(禮經), 악경(樂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등 육경(六經)과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 사서(四書)에 대한 주석서가 있다. 오경(五經)에 악경(樂經)을 더해 육경(六經)으로 하고 또 육경(六經)과 더불어 사서(四書)도 중시하는 점에서 한당유학과 다르며 이러한 경전 주석도 그의 개혁사상의 기초가 된다고 평가된다.

문집에는 유명한 일표이서(一表二書)-[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를 말한다.]를 비롯하여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대동수경(大東水經), 욕해고(浴解考), 아언각비(雅言覺非), 마과회통(麻科會通) 등이 있고 그 밖에 수십 편의 잡문과 시가 있다.

문집에 나타나는 개혁사상은 3단계로 나누는데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은 현실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운영만을 개선하는 1단계의 것이며, 경세유표는 농민적 입장에서 제도전반의 개혁을 꾀하되 조선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2단계의 것으로 본다. 잡문에 실린 탕론(湯論)과 같은 것은 주권재민과 인민혁명권의 입장에 선 것으로 제3단계의 것으로 분류한다.



이 중 특히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당시 아버지가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관계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민초들의 고달픈 삶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정조의 어명으로 1707년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수령들의 잘못을 조사하였다. 또한 곡산부사 등 지방관직접 농민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들으며 백성과 나라를 구하는 학문을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여 애민(愛民)의 마음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본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국가가 존립하고 정치가 행해지는 목적을 국민이 잘 살게 하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관리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과 억울하고 가엾은 사정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이 책의 일관된 사상은 애민(愛民), 위민(爲民), 나아가 균민(均民)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산 정약용이 부르짖는 위민(爲民)은 실천하는 위민(爲民)이었다.

그 한 예가 고을에서 일어나는 소송의 등급을 민사(民事), 공사(公事), 관사(官事)로 나누는데 여기서 민사(民事)를 공사(公事)나 관사(官事)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한 일이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국민이 못 살게 된다면 국가나 정치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촛불집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물가폭등, 국가 지도자 불신 등 혼란스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목민심서를 다시 펼쳐봐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가르침이 글로벌(Global)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인격수양(人格修養)에 도움을 준다는 점, 또한 미래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 들이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나 제18대 국회 의원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식구食口들이여! 밥 좀 먹읍시다



국어사전에서 가정(家庭)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의(衣), 식(食), 주(住)를 해결하는 운명공동체요, 생활공동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家族)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구(食口)들로 식탁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울고 웃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삶의 현장(現場)인 가정인 것이다. 이렇게 가족은 한집에서 함께 머물며 서로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본 세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한 가족이면서도 가족 같은 끈끈한 정도 없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위로해 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단지 필요에 따라 모였다 헤어지는 사람 밥 손님들처럼 되어 버렸다. 가족들이면서도 언제 함께 밥을 먹었는지 손을 꼽을 수가 없고, 서로가 바쁜 일과 속에서 언제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마치 하숙집에 기거(寄居)하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소리 없이 썰물처럼 사라져 버린다.

요즘은 직장을 이유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가족들은 외국으로 내보내고 남편 홀로 집을 지키는 외로운 기러기 아빠가정과 이혼한 부부들의 돌싱(돌아온 싱글)가정, 시집은 안가고 애나 키우겠다는 싱글맘 등 가정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대가족, 핵가족에서 이젠 부부들과 아이들이 따로 사는 단세대 가정으로 바뀌고 있고 더 나아가 혼자 사는 독신가정과 할머니와 손주가 사는 조손가정, 외국인 배우자와 사는 다문화 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해진 가정의 형태 속에서 최절 가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단지 필요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타인들처럼 변해가고 있다. 가정이란, 하루 종일 피곤했던 심신(心身)을 쉬이며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는 사랑의 둥지여야 하는데,

감수하 가족들 서로가 만날 여유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사라져 점점 모르는 사람들처럼 장(牆)이 세워져가고 있다. 집안은 어려운데도 가정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집밖으로 뛰쳐나가 친구들과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성격차이와 대화부족으로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정의 본질이 무너지고 점점 기능위주로 변해가는 오늘날 가정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사회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점점 삭막해 지는 세상 안에서 그래도 가족만의 살김을 찾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와 가정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즘 정부에서 가정복원운동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생활의 3대요소인 의·식·주가 가정 안에서 해결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첫째,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밥부터 먹어야 한다. 옛말에 "음식 끝에 정분난다."라는 말이 있다. 밥을 같이 먹다보면 없던 정(情)도 생겨나고 특히, 한국의 문화는 함께 찌개를 퍼먹는 식탁의 문화가 가족 간에 더욱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밥을 함께 먹지 않는다면 식구가 될 수 없다. 모름지기 가족이라면 밥을 같이 먹는 기본적인 관계여야 한다.

둘째, 잠은 함께 자야 가족인 것이다. 공부도 좋고 직장도 좋지만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들지 못한다면 가족공동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하여 각방을 쓰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하듯이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기숙(寄宿)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가족들이 같이 잠자고 함께 밥을 먹는 기본적인 가정의 시스템이 복원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 질수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밥 먹고 잠자는 문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스위트 홈(Sweet Home)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싼 이불 羽毛(우모)를 준비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항상 편안하게 휴식하는 좋은 이불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들이여!

어서 집으로 돌아가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구수한 된장찌개에 온가족이 함께 빠져 봅시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독립투사 조문기 선생

지난 2월 초 일제말기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인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이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선생의 삶은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에서부터 해방 이후 통일 · 민주화 · 친일청산운동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독립운동의 연속이었다. 선생은 해방 이후의 삶을 스스로 '제2의 독립운동'이라 불렀으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다. 해방과 함께 일제는 물러갔지만 친일세력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다시 등장하였고, 외세와 분단세력은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았다. 이후 친일세력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 각 분야를 장악하고 일제의 첨병노릇을 했던 군경찰은 반공애국투사로 화려하게 변신하기까지 하였다. 독립운동가들은 또다시 탄압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해방된 조국의 현실은 선생이 생각했던 그런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다. 선생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만 했던 이유였다. 선생은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민족만을 생각하며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웠다. 그 싸움은 일제와 싸울 때 그랬던 것처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신념과 열정은 그대로였다.



선생은 1926년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점점 가세가 기울어 보통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끼니까지 걱정할 정도였다. 결국 선생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멀리 떨어진 외가에 맡겨져 학교를 다니야만 했다. 이때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선생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일제의 침략상과 조국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이 후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16살이 되던 1942년, 선생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본강관주식회사 훈련공 모집에 지원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1944년 5월 선생은 평생 동지인 유만수 선생과 함께 민족차별과 멸시에 대항하여 조선인노동자들을 이끌고 대대적인 파업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전시체제하 일본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선인노동자 파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은 컸다. 지명수배로 쫓기는 몸이 되자 선생은 더 큰 할일을 위해 1945년 1월 몰래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선생은 박춘금을 비롯한 친일파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대한애국청년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1945년 7월 박춘금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기 위해 지금의 서울시 의회 별관인 부민관에서 '아시아민족분격대회'를 열자, 선생은 대한애국청년당 동지들과 함께 식장 안에 시한폭탄을 터뜨려 대회를 무산시키는 이른바 '부민관 폭파의거'를 단행하였다. 전쟁 말기 일제의 광분과 탄압으로 숨죽이고 절망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이 의거는 일제강점기 국내 최후의 의열투쟁이요, 친일파의 격분 대회를 조선 민족 격분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은 쾌거였다.

죽음을 넘나들며 고생 끝에 맞이한 해방은 선생이 꿈꾸던 해방과는 너무도 달랐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이 다시 득세하고 둘로 나누어진 조국의 분단 상황은 점점 고착화 되고 있었다.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또다시 고난의 길을 택한 선생은 동지들과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조직원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한 경찰들은 일제강점기 악명 높았던 친일경찰 출신이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여전히 독립운동가는 '쫓기는 자'였고 친일파는 '쫓는 자'였다. 이후에도 선생은 '이승만대통령 암살, 정부전복음모 조작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고문의 후유증은 평생 가시지 않았다.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선생의 진정한 조국의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고, 말년의 친일청산운동을 통해 더욱 빛을 발했다. 선생은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독립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독립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절과 광복절이 되면 늘 각종 기념식 참석 요청을 거부하며 괴해다닌 것도 여전히 친일세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선생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직을 맡아 친일청산운동을 주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독려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진정한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고 실천했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독립투사요, 영웅이었다. 친일인명사전발간을 목전에 두고 떠난 선생이기에 생전의 말씀이 더욱 귀에 맴돈다.

"나에게 친일인명사전은 제2의 독립운동이며 민족사의 당면과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잔재 청산만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미래를, 후손을 위한 운동이다. 그러기에 나는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멈출 수 없다."

정조, 수원으로 아버지 묘소를 옮기다

18세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시대였다. 우리가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어찌 보면 18세기를 좇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첨단 기술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 인간 본성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는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문화판에서 조금 논다고 하는 인간들이 해가 어슴프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술자리로 불려가 쓰디쓴 소주를 한 잔 걸치면서 떠드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문화는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문화가 문화인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는 자조감 때문이리라. 어찌되었건 그나마 문화의 진실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니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왠 21세기 문화론을 이야기하나 하고 독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8세기 문화의 총화가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인 융릉(사도세자가 장조(莊祖)로 추존되고 나서 불여진 이름, 세자 신분일때는 현륭원이었음)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융릉이 있는 지역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이 다니던 안룡중학교가 있는 동네로 더 유명해졌지만 실제 융릉이 있는 곳은 1789년 이전까지 수원도호부의 읍치가 있던 역사적 도시였다. 비록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한양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서해안으로 쳐들어오는 왜구를 막아내는 큰



융릉 침양원

군사도시로 위세를 떨치고 있던 도시였다.

수원도호부와 관련된 각종 읍지에 의하면 수원 사람들 혹은 지금의 화성 사람들은 "무예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수원지역의 현대사에 들어와서도 유명한 주먹들이 꽤나 많았었다.

지금 용·산봉 일대에 있는 만넘변은 과거 현재의 수원·화성·안산·평택의 중심지였다. 수원도호부의 관아가 있던 이곳을 중심으로 서해안을 방어하는 '방어영(防禦營)'의 군사들이 즐비하게 많았고, 서해안으로 올라오는 조운선의 휴식처를 위한 포구와 이들을 유혹하는 기생집들 역시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안근 도시들을 포괄하는 행정의 중심지로서 관리들과 유생들이 밀집되어 있던 장소였다. 삼한시대 상외국 혹은 모수국으로 출발된 지역은 고구려 시대 매홀, 신라가 통일한 후 수성군, 고려시대 수주 그리고 조선이 건국한 후 수원도호부로 불렸던 곳이고 이 도시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22대 국왕이었던 정조가 수원도호부의 옮치를 팔달산 동쪽으로 이전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었고 지역 백성들은 국왕의 명을 받아 새로운 터전인 팔달산 동쪽 들판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국왕의 명령이 있었던 날이 1789년 7월 15일이었으니 이 날이 기쁜 날인지 슬픈 날인지 정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이때는 이 지역의 거주자들은 아마도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신도시 추진 계획으로 집단 이주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수원 사람들을 왜 이전하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을 낳아준 생부(生父)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뭐고 생부는 무엇인가?

지난 번 제에도 언급했지만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은 인물이었다.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큰 대역죄를 지었었기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역죄인의 아들은 국왕이 될 수 없었기에 영조는 세손이었던 정조를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아들로 삼게 하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조를 큰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왕실의 족보를 수정하게 한 것이다. 하니 공식적으로는 효장세자가 정조의 아버지이고 사도세자는 생부(生父)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즉위 첫날 자신의 공식적인 아버지인 효장세자를 진종(眞宗)으로 추존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늘 자신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애끓는 사부곡(思父曲)이 있었기에 큰아버지이자 족보상의 아버지였던 효장세자를 추존하듯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국왕으로 있는 동안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영조가 살아생전에 세손이었던 정조가 국왕으로 있는 한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조는 그 대안으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대 최고의 묘자리에 이장해주는 것

이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명당자리에 잠들고 있는 사도세자는 역적이 아닌 국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묘소였던 양주 배봉산의 수은묘(垂恩墓)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정조는 충격을 받았다. 너무도 작고 초라한 무덤이었기 때문이다. 말이 세자의 묘소이지 일반 왕자의 예법대로 만든 작은 무덤이었기 때문이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하여 참으로 묘한 이중행동을 했었다. 사도세자가 죽은 날 그에게 세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세손이었던 정조를 불러 자신이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세손과 재제곰 앞에서 사도세자가 죽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김상로와 홍인한 등 노론 주도세력의 간악한 사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글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돌을 닦인식

마침내 세자의 장례식에 직접 묘소까지 찾아가서 제문을 읽는 등 죽은 아들에 대하여 엄청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도세자의 묘소였던 '수은묘'에 대하여 규모를 일반 왕자의 예법에 맞춰 공사를 지시하고 위상 또한 왕자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세자가 죽어 묻힌 곳을 '원(園)'이라고 칭하여야 함에도 영조는 끝내 일반 왕자의 무덤에 붙이는 '묘(墓)'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였다. 아마도 자신을 몰아내고자 했다는 터무니없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괘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조는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 수은묘를 방문하고 나서 참혹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국왕으로 즉위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묘소를 조선 땅에서 가장 좋은 길지(吉地)로 옮겨 주자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국왕이 되었어도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길 수가 없었다. 『정조실록』에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즉위년부터 옮기려고 했는데 '운(運)'과 '때[時]'가 맞지 않아 옮기지 못했다고 정조의 입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즉 정조의 즉위년인 1776년부터 묘소를 옮기기로 결정한 1789년 이전까지 모두 사도세자의 '운'이 무덤 천장의 운과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조는 훗날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장하도록 지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즉위년부터 옮기고자 했는데 하늘의 운과 땅의 때 그리고 사람의 운이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 '운과 때'보다는 정조가 아버지의 묘소를 옮길 수 있을 만큼 국왕

으로서의 힘이 없었고 더불어 국가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 가보자! 1789년 7월 10일 밤에 숭정원에서 정조의 고모부인 박명원을 상소를 정조에게 바쳤다. 내용인즉슨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제는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조가 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것이 바로 사도세자의 묘소가 불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실제 정조는 최근 드라마 이산에서 나오는 의빈성씨에게 문효세자를 낳았지만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대를 이을 국본(國本)이 없는 상태였다. 곧이어 몇 달 만에 임신상태로 있던 의빈성씨마저 죽고 말았다.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으로 대를 이을 수 있는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아들 상계군 마저 의문사 해버렸다. 정조시대 3대 미스테리로 꼽히고 있는 문효세자와 의빈성씨 그리고 상계군의 죽음은 정조로 하여금 절망케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박명원의 상소를 보고 소리 없이 울다가 마침내 다음날 어전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마침내 다음 날인 7월 11일 정조는 박명원의 상소를 승지로 하여금 읽게 하였다. 승지가 상소 내용 중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대목이 거론되자 정조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국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제하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왕이 내성통곡을 하는 동안 신하들은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창덕궁 인정전 안에 있던 대소신료들 중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찬성한 이도 반대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오두 침통한 정조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정조는 자신의 불우한 이야기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조선시대에 효(孝)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데 유교국가인 조선의 국왕 정조가 부친에게 효도를 다하고자 묘소를 이장하겠다는데 그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아무런 반대가 없자 정조는 자신이 조사한 명당(明堂)을 거론하다 마침내 수원부 읍치가 천하명당이라고 하며 3정승과 6조판서가 지관(地官)들을 거느리고 수원부읍치를 방문하여 명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정조가 수원도호부를 사도세자의 새로운 묘소 자리로 선택한 것은 그가 그곳의 지리를 사전에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사실 수원도호부 관아가 있는 화산(花山)은 조선 건국 이후 천하명당이라고 소문이 나있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조에 보면 수원도호부 관아 앞에 '국동지









동궐 마상

진외란과 별자호란으로 국토는 유린되었고 전란의 후유증은 국가 재정을 몰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시절이었기에 엄청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수원도호부에 능역 조성공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조라고 왜 이 사실을 몰랐겠는가! 정조가 즉위년에 바로 하늘의 운과 땅의 때 그리고 사람의 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한 왕권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 재정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실제 영조 재위 52년간 40년이 금주령(禁酒令) 시대였다. 금주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가뭄과 홍수 등으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의 참혹스러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국왕이 된 정조가 어찌 자신의 개인적 효심 때문에 국가경제를 흔들면서 부친의 묘소를 이장할 수 있었겠는가?

정조는 즉위한 이후에도 아버지 묘소를 옮겨주지 못하는 불우한 국왕의 처지를 비관하며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한없이 울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으로 지새우지는 않았다. 먼저 왕실의 경비를 대폭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자신부터 비단옷을 입지 않고 반찬을 줄이는 등 쓸데없는 일상 경비를 줄이는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개혁 정책과 농업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가진 자들을 위한 경제개혁이 아니라 대다수 백성들을 위한 경제정책들의 추진이었다.

공교육인 향교 교육을 강화함과 더불어 규장각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여 새로운 국가 개혁정책을 생산하게 하였다. 더불어 당시 국가 재정의 56%나 차지하고 있던 터무니없는 국방예산을 축소하여 그 예산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둔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경제를 회생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대 최고의 명당인 수원도호부 읍치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이 시기에 바로 정조의 고모부인 박명원의 상소가 있었던 것이다. 이 박명원의 상소가 정조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도세자의 묘소 이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의 반대도 없었다.

정조가 특히 수원도호부 관아가 위치한 화산을 사도세자의 묘소 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의 내용과 더불어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 자신이 그 자리를 천하명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5세의 나이부터 대리청정을 하던 사도세자는 영조와의 불화로 인하여 건강이 극도로 약화되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양온천행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어찌 보면 부친 영조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세자로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수원도호부에 도착한 세자는 효종이 죽은 그해 능역 자리로 선정된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능 터 자리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이곳이 진정 천하명당임을 확인하고 좋은 곳이라 감탄을 할 정도였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그 자리가 좋다고 했던 것이 아마도 머지않아 자신이 죽을 예감하고 이 자리에 묻혀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정조는 스스로 사도세자의 일대기를 저술하면서 사도세자가 화산의 능 터에 대한 극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속내가 바로 수원으로 묘소를 이전하게 한 진실한 내용이



융릉 근신지

었다. 부친이 원하는 곳에 묻혀주고 싶은 자식의 마음을 실천한 것이었다.

다음날인 7월 12일 수원도호부 옵지로 내려간 영의정 김익을 비롯한 신하들은 현재의 화성시 안녕동 일대가 모두 천하명당인데 그 중에서도 수원도호부가 있는 화산이 최고 명당이라고 하였다. 용의 여의주를 희롱하는 '반룡농주(盤龍弄珠)'라는 것이다. 실제 이 지역은 충청도 보은에 있는 속리산으로부터 '지기(地氣)'가 시작되는 '한남금북정맥'의 혈(血)이 마지막에 모인 그야말로 천하명당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묘한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지명이 용복면(龍伏面)이었다. 즉 용이 엎드려있는 지역이란 의미였는데 결국 용과도 같은 존재인 사도세자와 뒤이어 정조가 묻혔으니 신하들의 땅이름 만들기는 신령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신하들은 수원도호부에 사도세자의 묘분이 들어서 자리를 확정하고 도성으로 올라와 7월 15일에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도호부 관아 뒤편으로 이전하고 수원도호부 관아와 중심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민가를 팔달산 동쪽의 넓은 들판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최초로 신도시 건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의 수원도호부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한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가 단순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친을 위한 개인적인 효심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전한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였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정조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즉위하였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상태가 "혈맥이 막히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 오랫동안의 당파 싸움과 천재지변이 나라의 형편을 너무도 어렵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지만 탕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의 힘은 너무도 강한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국왕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위도시가 필요했다. 그래서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 이전을 통해 충청, 전라, 경상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교통로에 위치한 팔달산 동쪽의 넓은 들판을 주목한 것이고 바로 이 지역에 신도시 수원을 건설한 것이다.

결국 정조의 사도세자 묘소 이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국왕 정조의 효심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살리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개혁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현륭원 조성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집권 13년 동안 이룩한 문화의 성숙도를 사도세자의 묘소에 투영하였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이 18세기 우리 문화의 총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교과서 속의 신라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을 등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과 선정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 절반 가까이는 단 한 점에 문화유산조차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두 종류 이상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다. 서울과 경주이다. 유명한 석굴암과 불국사 뿐 아니라 경주역사유적지구가 통째로 등록되어 있다.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산재해 있는 종합역사지구로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능원지구, 신라왕묘의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재가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주가 품어온 두 유적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세계인이 함께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유산은 왜 많다. 우리가 상식선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많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은 크게 세 종류이다. 첫 번째는 문화유산(World Heritage)으로 분류되는 종류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유산과 인공건조물처럼 눈에 보이는 문화유산이다. 2008년 1월 현재 157국이 보유한 851건이 등재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보유한 문화유산은 총 9건이다. 종묘, 해인사장경판전, 불국사/석굴암,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유적, 고구려고분군, 그리고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다. 인간이 만든 유적과 귀중한 자연유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국토를 지닌 나라에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10건 이상 등재한 나라는 20개국이다. 한국보다 국토가 작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한국의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105번째 정도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네다섯 나라 정도 밖에 없을 뿐이다. 이웃 중국은 자연 유산 포함해서 53건, 일본은 14건을 등재하고 있다.

두 번째 종류는 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다. 말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진 유산이다. 현재 67개국 3대륙, 1국제기구에서 176건을 등록해 놓고 있다.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팔만대장경판, 그리고 조선왕조의궤 등 6건을 등재해 놓고 있다. 7건 이상을 등재한 나라는 5개국(미시코,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폴란드)에 불과하다. 중국은 5건을 등재하였고 일본은 단 한 건의 세계기록유산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영역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Oral and Intangible Heritage)이다. 현재 46개국에서 보유한 56건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그리고 강릉단오제 등 총 3건을 등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 건 이상을 보유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2건을 등재한 국가도 일본, 중국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이렇듯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문화대국이라고 자부해도 지나치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 국토의 면적이 세계 110위(남북한 합하면 86위), 인구 규모 세계 26위(남북한 합하면 17위)를 고려할 때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 능력이 우수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 능력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지역이다.

수많은 외침을 당했던 나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천 년 이상에서 천 년 신라 시대의 경주가 지닌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는 매우 궁금하다. 가깝게는 일본이나 중국, 멀리는 아



탑지역과도 교류를 하였던 신라 왕조가 창조했던 문명은 어떤 것이었을까? 미국의 교과서에서도 신라문명의 우수성은 간단하지만 매우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몇 가지 교과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왕조 하에서 한국은 강성했고 예술은 번창했다. 신라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에 속했다.(Prentice Hall, 2007, 『World History』)

동종 주조는 고대 한국 공예이다. AD 771년에 완성된 남한에서 가장 큰 종은 12피트(3.6미터) 높이와 약 25톤(110,000킬로그램) 이상이다. 타종되면 종소리가 40마일(6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고 한다.(Holt, Rinehart and Winston, 2005, 『People, Places and Change』)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아름답고 신기한 신라 이야기가 미국 교과서에 최근에 새로 등장하였다. 하코트 출판사에서 간행한 중학교 수준의 세계사 교과서는 제5단원 '후기 문명의 출현'(The Rise of Later Civilization)을 시작하면서 이 단원을 상징하는 글로 '달과 별의 공주, 선덕여왕의 궁정일기: 서기 595년 한국'(The Royal Diaries, Sndk: Princess of the Moon and Stars, Korea, AD 595)이라는 8쪽짜리 가상의 이야기를 화려한 배경 그림과 함께 실었다. 이 단원에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각 지역의 기원 전후부터 16세기까지의 고대 및 중세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시대의 상징으로 이래와 같은 내용의 선덕여왕 어린 시절의 일기가 선택된 것은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런 일이다.

AD 500년대에는 왕들이 세계의 이곳저곳을 다스렸다. 반면에 통치권을 가진 여왕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선덕여왕은 예외였다. 자라나면서 어린 선덕은 어느 날 자신이 신라라는 이름의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의 아버지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고 선덕은 그의 가장 큰 딸이었다. 한국 왕족으로 자라나는 것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가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간의 감을 준다. 이 이야기는 선덕이 공주

로서 썼을 수 있는 일기의 형태로 되어 있다. 선덕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듯이 'Dear Diary' 라는 말로 일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그녀는 죽은 할머니에게 바치는 식으로 일기를 시작한다.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 진평왕 16년

모든 하인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건물을 청소한다고 여념이 없어요. 할머니 기억해요? 새해 첫 5일 동안은 빗자루를 사용하면 안 되었고, 사용하면 행운을 쓸어낸다는 걸요.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새 옷을 짓고 있어요. 오늘밤 우리는 머리도 감아야 해요. 그래야 새해에 행운을 몰아 내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모든 친척들과 함께 앉아 당신을 기리며 제를 올릴 거예요. 할아버지와 모든 우리 김씨 조상을 기립니다. 하늘엔 달이 없고 단지 은하수만 빛납니다. 할머니는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새해 선물로 나만의 관측소(별과 행성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장소)를 바란다는 것을요. 아버지 귀에 속삭여 주세요.

첫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진평왕 17년 입춘(봄의 시작)

할머니 토끼의 해 새해에요.

방금 부모님께 세배(노인에 대한 공경표시)를 드리고 왔어요. 이제 할머니께 절을 올립니다. 우리는 오늘 할머니의 산소를 깨끗이 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새해 음식을 드렸습니다. 올해 두 분을 위해서 요리사가 50가지 이상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했으면 좋겠어요.

후에

반월 여신의 축제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멋진 축제에요. 아이들은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주위를 뛰어 다니고 낮은 관직의 신하들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옷, 밝고 새로 지은 소매 넓은 저고리(소매가 넓은 긴 자켓)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골 귀족들은 가장 비싸고, 새로운 옷으로 단장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보라색 도포로, 어머니와 동생들과 저는 화려하게 자수가 놓인 빨간 비단옷을 입었어요. 저는 황금색 신발을 신었



고(발이 많이 아프게) 저의 금관은 제가 걸을 때 음악적으로 딸랑딸랑 거리는 내 사슴의 뿔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해일 입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에 금반지를 끼어서 너무 무거워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궁중 음악가들이 느리고 조용한 춤을 추었지만 저는 궁궐 바로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민들의 축제를 보는 데 정신을 모았습니다. 농부들은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뛰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때로는 일반인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멋진 스포츠처럼 보인답니다. 그렇지만 자잘율사가 차장(선덕의 친구)이 말하듯이 "욕망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기에 나는 너무 많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첫 달의 두 번째 날, 진평왕 17년.

우리는 어제 밤 특별한 신년의 묵묵(tuk-tuk)을 먹고 늦게 잤어요. 묵묵은 신라의 모든 사람들, 왕자에서 농민까지 이 날 먹는 거예요. 이것은 찐 찹쌀로 만드는 것인데 두드린 다음에 동전과 반달 모양으로 잘라서 만들어요. 국은 고기와 간장, 엷게 차른 계란으로 만듭니다. 할머니도 아시듯이 이 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들 해요. 나도 한 그릇 마시고 열 다섯 살이 되었어요. 천명은 열네 살, 그리고 선화는 열세 살이 되었어요.

첫 번째 달의 다섯 번째 날, 진평왕 17년.

우리 가족은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외출을 했고, 우리가 지날 때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나는 여왕과 높은 관직의 관료들만이 탈 수 있는 가마를 탔어요. 우리가 내릴 때마다 하인들이 우리가 밟고 갈 비단을 땅에 깔았어요.

돌담 뒤로 도시의 검정 기와집들이 서서히 보이고 화려한 지붕이 날아갈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성골계급만이 다섯 개의 성스러운 색깔-빨강, 검정, 흰색, 노랑, 초록-으로 궁궐을 칠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들 집들의 자연스러운 나무도 역시 아름다워요. 할머니, 금성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비고 비좁은 낡은 집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시의 집에는 평균적인 사람 키의 세배 이상 되는 높은 담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에서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갑갑해 하지 않지요. (Harcourt, 2005, 『Horizons: World History』)



선덕여왕 복장

이 일기 글은 이 교과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출판사의 저자들이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이다. 삽화로 수록된 한복 입은 선덕여왕의 초상 또한 출판사에서 창작해 낸 것이다. 창작임에도 불구하고 신라 시대의 풍습이나 문화, 사회 질서 등을 그런대로 보여주고 있다. 떡국이 분명할 것 같은 신년 음식을 '뚝뚝'이라는 국적 불명의 명칭으로 소개한 것은 이상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해하고 넘길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의 오류는 아마도 우리의 요구에 따라 쉽게 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보스턴에 있는 다른 교과서 출판사를 방문하였을 때 이 출판사에서 곧 간행할 교과서 원고에 바로 이 선덕여왕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 유명 출판사에서 개발한 초상화와 이야기가 다른 출판사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한국의 고대 역사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장면이었다.

이 교과서의 선덕여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역사는 현대적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음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복원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동한 재생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교과서 오류시정활동이 더 이상 잘못된 외국 교과서를 찾아 시정을 요구하는 데쓰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훌륭한 교과서를 찾아 감사를 표하는 우호적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된다. 우리나라의 그 어느 교과서도 선덕여왕을 이처럼 생생하고 멋지게 묘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비봉면 유포리 당곡말의 당제사

지난 5월 24일 비봉면의 인공습지에서 전통모내기 행사가 있었다. 전통모내기 행사는 우리민족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화성시와 화성문화원, (사)한국국악협회화성시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다. 오늘날 보편화 되어있는 기계화농법이 아니라 못자리에서 추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하고자 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전통모내기방식을 재현함으로써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자함에도 행사의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수확하는 쌀로 올 가을 기로연을 통하여 화성시 노인분들을 대접한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날 비봉면 유포리 당곡말의 당집을 찾았다. 남천리 남이장군의 묘를 찾아서 이 길을 지난 지 1년여만의 일이다. 지난해에는 급하게 지나는 길이라 미처 당집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었다. '당곡말'이라는 도로명에서 이 지역에 마을신앙이 존재하였거나 존재할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사내 중의 사내, 남이장군

현재 남이장군의 묘역은 경기도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터이다. 기왕 비봉을 말하고 당곡말의 당제사를 소개하려니 이 지역의 정신적 푸리로 자리매김한 남이장군의 설화 한편을 소개하고 가기로 한다. 그가 왜 사내 중의 사내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소년시절 남이 장군이 큰 집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어떤 하인이 보따기에 무엇을 싸서 지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보자기 위에 허얀 분면(粉面)의 사귀(鬼)가 앉아 있으므로 기이하게 여겨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 갔다. 하인은 당시 재상인 권람(權擥)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



의령면 남전리에 있는 남이장군의 묘

인이 들어간 지 얼마 후 집안에서 곡성이 나는 것이었다.

집안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 대감의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사귀의 작간(作奸)에 의한 것임을 안 남이는 그 집 하인에게 "내가 들어가면 그 처녀를 살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전해들은 재상집에서는 별로 믿으려 하지 않다가 그래도 행여나 하고 그를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남이가 처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 과연 어여쁜 처녀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있는데, 가만히 살피니 아까 보았던 사귀가 처녀의 가슴에 눌러 앉았다가 남이를 보더니 곧 희해서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런 뒤 처녀는 차차 소생하였다. 그러나 남이가 나오자 처녀는 또 숨을 거두게 되고 남이만 다시 들어가면 처녀는 다시 소생하곤 하였다. 이 때 남이가 보자기에 싸온 물건이 무엇인가를 집안 식구에게 물어보자 조금 전에 가져 온 콩시루를 먹자마자 가슴이 막혀 기절하였다고 말하였다. 그제야 남이가 아까 보았던 사귀의 이야기를 권재상에게 하고, 그에 적합한 약을 처방하여 죽었던 처녀를 마침내 살려내니 그 처녀가 바로 권재상의 넷째 딸이었다. 권재상은 딸을 살려 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겨 남이를 사위로 삼게 되었다 한다.

소년 남이는 훗날 장군이 되어 여진을 토벌하는 등의 공을 세우게 되었고, 임금의 신임을 받는 명장이 되었다. 그런데 여진을 토벌하고 올은 시가 문제가 되었다. 바로 소년 남이에게 질치당한 사귀의 장난 때문이었다. '백두산석마도진白頭山石磨刀盡, 두만강수음마무豆滿江水飮馬無, 남아이십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 후세유칭대장부後世誰稱大丈夫: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



둔포리 당곡말 당집

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네,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 하겠는가' 라 읊은 시였다. 바로 이 시의 '미평국' 의 '평(平)' 을 귀신이 '득(得)' 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득국' 이라 한다면 결국 이 시는 나라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남이는 이러한 모함으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남이장군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을 구구하게 변명하려들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러니 남이장군의 의기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가늠케 되는 것이다.

남이 장군과 비봉인공습지의 가운데에 당곡말이 있다.

당곡말은 바로 남이장군의 남아다운 기개의 아름다운 정신이 뿌리내린 남천리와 인간의 보본인 효의 실천장인 인공습지 사이에 놓인바 되었다. 당곡말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전통이 살아있고 전승된다는 것은 화성시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려는 뜻과 의지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라 여긴다.

당곡말의 당집은 마을 뒷산에 있다. 현재는 조립식으로 지어져있으나 그 전에는 초가의 형태였다고 한다. 해마다 영을 엮어서 지붕을 새로 해 이고 하였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지금의 형



제보자 이재권(오른쪽)

태를 갖추게 되었다. 새로 염을 엮을 때에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벗단을 나르고 하여 당집의 지붕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서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하여 이러한 번거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오늘의 형태가 된 것이라고 하는 제보자(이재권, 김진섭)의 말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당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당주라고 하며 여느 마을과 같이 생기복덕을 보고 선출되며, 당주는 대문에 황토를 배설하고 대문에 금줄을 걸며, 한편 솔가지를 걸어 부정한 사람이 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주는 제를 지내기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조라술을 준비한다. 당주 외에 당주를 도와 함께 당제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소염이라고 하여 두 명이 더 있다. 이들은 함께 당우물을 청소하고 이 물로 목욕재계하며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당제사를 담당하는 당주나 소염으로 선출되고 나면 이도 금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당제사의 제물은 검은 돼지를 한 마리를 올린다. 떡은 흰무리(백설기)를 올리며, 당제사의 제주인 조라술 당일 조라로 올린다. 이 밖에 삼색과일과 통북어를 올린다. 이때 통돼지는 흰털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며 며칠이 소요되더라고 반드시 털빛이 고른 검은 돼지를 준비하였다. 과일은 통밤과 대추, 곶감으로 밤은 한 되, 대추는 한 홉을 올린다.



당집 옆 시루

당제사는 매년 동짓달 초사흗날 밤 10시경에 거행된다. 이 때 당주와 두 명의 소염이 함께 당집에 올라 제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본래 당제사를 동짓달로 정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제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마을에 참봉이라 불리던 한상일이란 어른이 동짓달 초사흗날로 정하였다고 하며, 이 어른이 세상을 뜨시자 달리 날을 잡지 못하여 굳어진 날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마을에서는 당제사를 지내면서 길지와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말 그대로 각 집안마다 1년 내 무탈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태우는 것으로 여느 마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창호지를 접어 길지를 당집에 내어 놓는 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점이다. 물론 길지를 올리는 마을들이 여럿 존재하고는 있지만 보편적인 행태는 아니다.

당목인 소나무는 사라지고 몽돼지는 돼지머리로 대신하게 되었다.

본래 당집에는 당목으로 모시는 소나무가 한그루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한 15년 쯤 전, 당집에 새로 해 이을 영을 엮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올라갔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이것이 이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인 줄을 모르고 소나무 가지를 잘랐다고 한다. 당시까지도 마을사람들은 아무리 땔감이 없어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나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



당집 뒷면 모습

조차도 건드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신성한 나무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일이 있은 이후 객사를 하고 말았다. 당목인 소나무는 그 뒤로 시들해졌고 끝내 고사되고 말았다.

한편 제물로 올리던 통돼지는 마을에 젊은이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를 당집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 이제는 돼지머리만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돼지를 통으로 올릴 때에는 돼지를 잡아 내장도 버리지 않았고, 제를 지내기 전에는 누구 하나 고기 한 점 맛도 보지 않고 통째로 올렸으나, 지금은 함께 당제사를 주관할 젊은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이렇듯 우리의 전통과 민속은 그 바탕이 되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아쉽기는 하지만 전통도 민속도 시대적 환경을 따름이 자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촌로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전승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유포리 당곡말의 당제사는 화성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는 지역민들의 정신적 뿌리이다. 또한 당곡말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근거인 것이다.

筆法

- 한글 · 板本體 (1) -

板本體의 種類

板本體란 오늘날 우리들이 한글의 代名詞처럼 알고 있는 「궁체」가 생기기 以前의 모든 國文의 古體를 가리키는 말이다.

판본체에는 圓筆體, 方筆體, 筆寫體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圓筆體의 古典으로는 訓民正音, 東國正韻이 있으며 方筆體로는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등이 있고 筆寫體의 주요한 것으로는 杜詩諺解, 經書諺解등이 전해져 온다.

한글의 原形이라고 할 圓筆體「訓民正音」은 원래 漢文의 篆에서 그 形象을 따온 것이다.

따라서 그 筆法도 篆書처럼 圓筆로 썼던 것인데 그것이 시대의 변천을 따라 方筆로 변하고 다시 筆寫體로 바뀌었다.

그러나 書체의 변화에 따라 文字字體가 모두 바뀐 것은 물론 아니며 다만 正音體에서 쓰인 文字 가운데에서 「ㅇ」만이 方筆이 되면서부터는 圓點대신 畫線으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단 「ㅇ」自體가 독립된 文字로 쓰일 경우만은 예외이다.

판본체의 종류가 세 가지인 것은 사실이나 판본체는 대체로 모아 成宗時代를 中心으로 하여 그 以前과 以後에 있어 書體의 양상이 다른데 즉 成宗以前의 것은 마치 篆字의 「고딕體」처럼 획에 力이 지고 규칙적인데 비해 그 以後의 것은 다분히 筆寫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宮體는 말할 것도 없이 이 板本體가 변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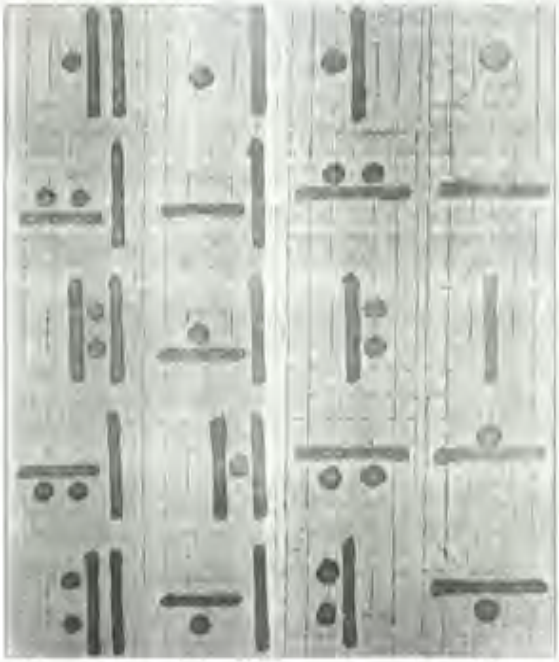
흔히 宮體를 쓸 때 아름다움을 찾는 나머지 技巧에 치우쳐 「그리는」 경향이 허다하나 한글의 올바른 획, 바른 字形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原體가 되는 板本體를 理解하는 것이



訓民正音 原本



基本字



基本字



正音字

마땅하다고 하겠다.

板本體를 圓筆體, 方筆體, 筆意體로 나누어 그 筆法을 요약해서 설명한다.

1. 圓筆體

訓民正音의 文字는 初聲字 中聲字 終聲字의 세 종류로 되어 있다.

基本이 되는 文字는 初聲字 17字와 中聲字 11字의 28字인데 初聲字에는 合을 붙여서 쓰는 合書 6字가 있어 字母數는 23字가 되며 또한 中聲에는 두字이상을 합쳐서 쓰는 複合字가 18字 더 있기 때문에 29字가 된다.

그러나 終聲字는 따로 없고 初聲字를 그대로 쓴다.

字體는 圓(點)과 線(畫)만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直線(畫)이라 해도 그 筆意은 圓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板本體 쓰는 法

□ 初聲字 쓰는 法

1) 初聲字를 두개 나란히 붙여서 合書할 때에는 各字의 폭을 좁힌다.

2) 初聲字와 中聲字를 합쳐서 並列로 쓸 때에도 길이는 길게 하되 폭을 좁히며 縱列로 할 때에는 길이를 짧게 한다.

3) 去聲을 표시하기 위해 찍는 點이나 上聲을 나타내는 두 點은 글자 왼쪽 中間에 찍되 「丶」보다 작게 하여 구별이 쉽 되도록 하여야 한다.

去聲이니 上聲이니 하여 글자 옆에 찍는 點은 中國發音의 區別인 四聲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去聲은 높은 소리, 上聲은 높아가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訓民正音 原本 참조)

○ 中聲字 쓰는 法

1) 中聲字는 初聲字보다 약간 길게 쓴다.

2) 點은 畫中央位置에 서로 닿을 듯이 가느런히 찍으며 點이 둘일 경우에는 畫三分의 一 되는 위치에 하나씩 찍는다.

○ 終聲字 쓰는 法

終聲字는 初聲字와 같이 쓰인다. 다만, 初聲字보다는 약간 작게 쓴다.

이러한 비례관계는 宮體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사진 | 김기홍 (경기도사진대전 초대작가)







현재 만의사 천경

중리

만의사

무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현재의 만의사는 사호를 '무봉산 만의사(舞鳳山 萬義寺)'라 하여 화성시 동탄면 중2리 14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나, 본래는 수원군 동족면 만의리, 현재의 동탄면 신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만의사 고찰을 옮겨온 것이다. 현재의 만의사는 신라시대의 고찰로만 알려져 있을 뿐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며 폐허가 된 옛 절터에 1312년(고려 충선왕 4)에 천태종 진국사(天台宗 珍岳寺) 주지 혼기(混其) 대선사가 중창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 삼장선공 스님이 이 절을 주관하면서 천태종의 수행 도량으로 삼았고, 1390년(고려 공양왕 2)에 신조대사에 의해 큰 사찰로 중건되었다. 신조대사는 본래 천태종 치안산 각림사(覺林寺)에 주석하였으며 성품이 어질고 용맹하며 뛰어났다고 한다. 1388년(고려 우왕14)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큰 역할을 하였던 인연으로 나라에서 공패를 특사하고 아울러 만의사와 그곳 노비를 길이 법손에게 전하게 하여 크게 번창 하게 되었다.(화성시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제2권 「충효예의 고장」 139쪽)

▸여전히 물맛이 좋다는 현재의 약수터는 맛있게? 변모해 마치 동네 공원 약수터 같다.



▸▸만의사 입구에 들어서자 근사하게 지어진 별장 같은 집들이 먼저 눈에 띈다.





임진왜란 당시 만의사에서는 승병들이 훈련을 하였는데, 법을 짓기 위한 쌀 씻는 물이 오산천까지 흘렀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승병들이 있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만의사에 있었다는 옛 동종이 무슨 연유로 현재의 위치인 수원시 화성 팔달문 문루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의 만의사 종각에는 새로 주조한 동종이 매달려 있을 뿐이다.

중리저수지

중리저수지는 화성시 관내 주요 수리시설 중 하나였다고 한다. 사진 왼쪽으로 골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멀리 큰 건물이 보인다. 근처에는 몇 채의 음식점만이 있다. 농번기 철이라 그런지 물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다. 만의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청계리

청계리라는 이름은 풍덕공소부터 망원리에 이르는 하천과 마곡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아름답다 하여 이름을 청이고 옛 지명은 '마곡동 이곡리'에 속하여 이곳 이라고 전한다. '화명지' 주변 마을 명에 '청계동(淸溪洞)'과 같이하여 많은 것으로 보아 조선말엽 이명서에 불리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이곳은 송탄신도시 여파로 인해 많은 가구수의 이어 이주를 한 상태이며 동리와 도로, 마곡도 공원이 동정중심 건설되어 있다.

마을을 지배하는 400년 느티나무(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 주변으로 주민들의 이야기 꽃이 남아있다. 예전에는 이곳에 터주하리가 있고 음력 1월과 7월에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암수 두 그루중에 생명은 아이들의 놀장난으로 수나무가 다쳐 없어졌다. 입과 입 자리로 보이는 작은 옹이가 예전 지금 신구동과 음미 즉일 아직 우리는 이곳으로 전라





서아울운동으로 개발된 스레이트 지붕과 같은 흙벽이 아늑이동아에 재미있고 서있는 저 장독대 같아서이 정을 살고 있다. 오래된 것일수록 그 건 같은 주는 것 같아요. 이곳 사진 속에서 사는 1 2000 년 이야기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삶의 여유 속에는
고단한 일상이 숨어있습니다

작가 초대석





작품설명

돈래정씨 출토 유물을 참조해서 만들었으며 소재는 겉감은 저색 운문단, 안감은 홍색 운문사로 하였다. 홈질, 공그르기, 온박음질 등의 손바느질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단령의 특징은 깃에 심을 넣지 않고 솜을 깔아서 넣고 이워 박는다.

원삼(圓衫)

Wonsam, Women's court robe

원삼은 왕실의 내명부(內命婦)와 사대부가 외명부(外命婦) 여성들의 예복 및 서민들의 혼례복으로 사용된 것이다. 노의(露衣), 장삼(長衫)과 같은 대수(大袖)류의 포가 원삼 한가지로 집약된 것으로, 선조 비 의인왕후의 「반전혼전도감의궤」와 국왕「공중빈기」에는 '元衫'이라 묘기되고 있다. 원삼은 임금이 둥근 데에서 온 명칭으로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색단령

Jasackdallyeong, Men's official robe with a round collar

조선시대 남자의 단령은 조선 말 고종대 관복 개혁 시기에 지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상복(常服)으로 착용하였는데, 광무 8년(1900)에 단령을 양복으로 바꾸면서 이후에는 신랑의 혼례복으로만 전해지고 있다.단령은 조선 초부터 관복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단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종은 서민들의 단령 착용을 제한하였으나 혼례 때만은 착용을 허용하였다.



이채휴

1992 기능경기대회 한복부문 (은상)
2004 - 2005 화성시 공예협회 부회장
2004 경기도 관광상품공모전 (장려상)
2004 경기 무형문화재 대추채 전면염색 (시연회)
2005 경기도 시민의날 전면염색 (시연회)
2006 한국공중부식 연구원 수의사대부수의 1수료)
2006 단국대 명성교육원 전통복식 전문가 과정 (수료)
2007 부산 한국 문암 공예전 (특선)
2007 한국 전통 한복 문화원 (장려상)
2007 제주 특별 자치도 (예술상)
2007 유희경 복식문화 연구원 무형문화
("전통 속 혼례복의 어제와 오늘" 전시)
2007 인천 "세계의상 패스티벌" 참가
2007 제2회 온고을 전통 공예 전국대전 특선
현) 이영자우리옷 (전면염색) 대표
현) 복식문화연구원 유희경 복사 사사
현) 서울 무형문화재 침선장 박선영 사사



지승공예 (친보 배듭 옹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자(장만지)위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지(서책)속에서 살다 결국 한지와 싸여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민족에게 한지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아서는 안될 소중한 생활 용품이였으며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온 자랑 스러운 문화유산인 한지를 이용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물지개를 진 아낙네 등 여러 종류의 다양이 인형을 만들어 집안을 장식할 수 있으며, 생활 용품으로는 아주 작은 소품 부터 크게는 장농까지 못만드는 것이 없다.

작품설명
지승공예 친보배듭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 가는 과정이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한올 한올 엮어 가듯을 승화시켜 가는 과정이다.



박영자

-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2회 입선
- 한국 종이 공예 공모대전 특선 입선
- 인사동 인사아트 및 토대 전시회 16회

제14회

난파동요제



제14회 난파동요제가 6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내 12개 학교가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중간 중간 축하공연과 함께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금년부터 경기도 전체로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영예의 대상은 안성 용머리초등학교가 수상을 하였다. 난파상은 봉담초등학교, 금상 수일초등학교, 은상 황곡초등학교, 동상 송원초등학교, 우수가창상 화성금곡초등학교, 인기상 사곡초등학교, 지도자상은 용머리초등학교 박민선생님이 수상을 하였다.



대상/용머리초등학교



금상 /수일초등학교



난파상 /봉담초등학교



은상 /황곡초등학교





용머리초등학교



하상금곡초등학교



황곡초등학교



효원초등학교





홍상 / 송원초등학교



인기상 / 시곡초등학교



권선초등학교



봉담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시곡초등학교



고색초등학교



권일초등학교

축하공연



리틀엔젤 핸드벨콰이어



화성시소녀소년합창단

공연이모저모



















정조효행문화제

2008 정조효행문화제가 5월 3일과 11일 융릉과 건릉, 용주사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3일(토)에는 융릉과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정조대왕의 孝 사상을 기리기 위한 '효' 백일장, 흥재미술제, '효' 서예휘호대회가 진행되었다.
2천여 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기량을 뽐낸 후, 융릉·건릉 정문 입구 특설무대가 설치된 공연장에서 다양하고 흥겨운 공연을 즐겼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송시탕은 함께 온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였다.

또한 11일(일)에는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재현한 어가행렬이 효의 원찰 용주사부터 융릉 재실 앞까지 거행되었으며 어가행렬이 끝난 후 곧이어 건릉 산릉제례가 진행되었다.
이 날 어가행렬에는 병점고등학교 학생과 해병대사령부 부대원들이 참여하여 정조대왕의 효심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기리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① 효백일장, 흥재미술제(융릉원림)
② 공연장 모습
③④ 어가행렬 모습

우리 땅, 우리 역사 둘러보기

문화유적답사가 4월 11일 충남 서천군(제38차/철새탐조대, 한산모시관, 문헌서원, 동백정)과 5월 29일 충남 태안군(제39차/태안마애삼존불, 안면도 수목원, 산림박물관, 꽃지해변 내 할미할아비바위)에서 현지 문화원과 문화유산해설사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제39차 답사 시 태안군 주요 유적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김좌진 생가를 방문하였다.



문화유산 방문교육

금년부터 시작된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이 4월 12일 청룡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용주사 답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청룡초등학교와는 통새학교 협약식을 맺어 매월 1회 답사를 실시하며 문화원 방문교사를 지원,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하였다.

4월 15일에는 삼괴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강의를 하였으며, 5월 3일은 병점중학교를 찾아 용통·건릉과 용주사에 관해 강의를 하였다. 방문교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재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사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청룡초등학교(용주사 답사)
② 병점중학교



개강식



김현정 교수



이동근 박사

역사문화학교 심화반 개강

역사문화학교 심화반이 4월 4일부터 개강되었다. 10개의 주제로 심화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1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점남 박사의 전통건축(사찰건축 및 고건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김현정 교수의 불교문화(4강), 이상배 교수의 영조 · 정조 시대사(4강), 이동근 박사의 화성시 독립운동사(4강), 이희중 교수의 조선시대 왕릉의 제도 및 왕의 장례(3강), 김자영 박사의 현륭원원소도감의궤(1강), 용주사 답사(권중서 포교사), 권오영 교수의 당성에 대해서(3강), 김용국 박사의 화성의 민속(2강), 정갑식 박사의 화석과 자층 및 공룡알화석지 강의와 답사(2강)가 있으며, 이용남 박사의 공룡(1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현재 화성시 독립운동사까지 강의가 진행된 상태이다.



2008년 제2·3차 이사회

문화원 이사회가 3월 13일(목) 및 5월 9일(금)에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이사회에서는 신임 임원에 대한 위촉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제3차 이사회에서는 임 · 회원 해외문화유적지탐방, 회원 승인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전통모내기재현행사

우리 고유 전통방식의 모내기가 5월 24일(토) 비봉인 공습지 주차장 앞 들판에서 재현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0일 논에 볍씨를 파종하였고 한 달여 후인 이날 모를 손으로 직접 내는 체험행사와 더불어 진행되었다. 아침에 찌 놓은 모를 지게에 옮겨와 논으로 던져놓고 두레놀이도 한판 신명나게 놀고 나서 참가자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논으로 들어갔다.

못줄을 따라 서툴지만 한 손 한 손 논에 모를 심으며 가끔 선창에 이어 소리도 따라 불러보는 체험가족은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옛날 논두렁에서 먹던 새참과 들밥을 먹으며 재현하는 사람들은 향수에 젖었고 처음 경험해보는 부모와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하며 즐거워했다.

이 행사는 가을 벼 베기 체험으로 이어지며 이곳에서 산출되는 수확물은 의미 있게 사용될 계획이다.



볍씨파종



모내기



모내기재현



모내기(가족체험)

춘계석전대제

5월 11일(일) 남양향교 춘계석전대제 남양동 소재 향교 내 대성전에서 거행되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한 오성과 공문 10철, 송조 6현, 한국 18현의 위패를 모셔놓고, 매년 봄·가을의 2차례 문묘제향을 올리고 있다. 전년도부터 양력 5월 11일(공부자의 기일, 음력 4월 11일을 양력으로 환산)과 9월 28일(공부자의 탄일 음력 8월 27일을 양력으로 환산)로 석전대제를 지내고 있다. 이번 춘계석전대제에는 화성문화원 한상업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안곡서원 석전대제가 4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신면 상안리 소재 안곡서원에서 거행되었다. 안곡서원은 도원재 박세희, 송촌 박세훈, 인재 홍성의 3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봄(음력 3월 5일)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역사문화지킴이 활동

문화원 소속 역사문화지킴이들이 매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실내모임과 함께 관내 · 외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학습 하고 있다.

4월에는 청와대와 칠궁을 답사하였고, 5월에는 홍유릉을 답사하며 황제릉과 왕릉에 대한 비교 공부를 하였다.

현재 문화원 방문교사와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댄스스포츠 라틴크리스탈

문화원 댄스스포츠 라틴크리스탈이 4월 20일(제5회 인천컵), 6월 7일(제1회 광명시장배)에 전국 프로 · 아마추어, 학생 · 일반부 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에서 두 대회 모두 영예로운 대상을 차지했다. 매주 화 · 수 · 금요일 수업 및 연습을 통해 실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라틴크리스탈은 전국 대회에도 출전하지만, 관내 여러 행사에 찬조출연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봉담읍에서 실시한 길거리 축제에 출연하여 많은 환호를 받았다.

요즈음은 차차차, 룸바, 자이브에 이어 탱고에 도전하고 있다. 중년의 여성, 그들의 열정이 아름답다.

피가로의 결혼에서 메세나 운동으로

「피가로의 결혼」

같은 무대 예술인 연극을 하고 있는 나도 "오페라"하면 왠지 저만치 떨어져 있는 색다른 사람들의 귀족 예술처럼 느껴져 한 번도 발걸음을 주지 못했는데, 하물며 공연 예술과 접촉하기 힘든 우리 화성시 주민들에게 이게 웬 7년 가뭄 끝에 비 소식처럼 반가운 일이란 말인가?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해 우리 실버무지개 극단 단원들에게 설명해 줄 자료를 찾아보았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로도 나왔던 모차르트의 천재성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작곡으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선정하였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커진다. 짤막한 사전 지식으로 준비를 하고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찾은 벨칸토



아트센터 대극장!

이런 완벽한 시설을 갖춘 무대가 우리 인근에 있었다니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 공연 예술이 그렇지만 첫 날 공연에 Cast 또한 학생 위주로 짜여 있어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 일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넘는 대장정의 4막이 끝나고 커튼 콜의 박수 소리와 함성 속에서 나는 완전히 멍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간의 목소리를 저렇게까지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 낸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페라"하면 왕실 귀족들의 사치풍의 예술이라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저 정도라면 마지막 날 공연 예정인 기라성 같은 교수들의 공연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나는 참을 수 없는 조바심에 마지막 날 공연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연 명성에 걸 맞는 관록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묵직한 중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굳이 평을 한다면 첫날 공연에서는 힘과 패기 그리고 땀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 공연에서는 안정감과 노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같은 공연가로서의 아쉬움이라면 무대 장치의 허술함이다.(사실, 무대 연출이나 배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관객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늘 무대상의 좋은 점 보다는 결점만 찾게 되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다. 넉넉한 예산이라면 전문 무대 예술가들에게 의뢰하여 화려한 무대를 꾸밀 수도 있지만, 무료 공연의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동병상린의 아픔을 느낀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대 뒤쪽의 검은 커튼이 분위기를 짓누르고 있어 코메디 같은 재미있는 줄거리를 어둡게 만들었고, 흐린 조명으로 배우들의 의상마저 퇴색된 것처럼 보였으며, 4막의 정원 장면에서 의자를 이용한 장치는 정원이라기보다는 공동묘지에서 노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뒷면에 계속 비추었던 비너스 신화(?)같은 슬라이드 영상은 극의 내용 중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인지, 생뚱맞은 감이 있었다.







아무튼, 이런 사소한 흠이야 어느 공연인들 없겠냐마는 이러한 재작을 여기 수원대학교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공연을 위해 화성시에서 얼마간의 재정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요즘 흥망에서 공연되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뮤지컬 한편의 제작비가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일까? 단기간의 재임 중 성과를 보여야 하는 민선 시장과 의원들이 과연 문화예술의 지원에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Mecenat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의 경제적 취약성과 관중도 예술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해 기업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발전시키자는 운동이 메세나 운동이다.

이 명칭의 유래는 로마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가 문화예술을 적극 지원하는 정치를 펼친데서 그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군사적인 힘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던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그 힘의 공백을 경제력이 메우고 있으며, 또 다시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전개되므로 해서 문화지식 정보를 이용한 상품이 경제전쟁을 주도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윤 추구만을 위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위치한 지역 환경과의 적합성, 기업의 실제 모습과 이미지가 그 구성원인 사원과 소비자,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등 경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과제가 존재한다. 바로 이 점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예술 문화 자원 등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시의 문화정책, 예술가의 창작 욕구들을 잘 조절하여 상자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사업을 변화하는 시대에 문화원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고 수준의 「피가로의 결혼」같은 오페라는 화성의 수원대학교에 가야만 볼 수 있다는 문화예술의 화성시가 되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일회성 무대가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되기를 바라며…

시기획실 수원대학교

화성지역의 3·1운동과 유적답사, 증언록

머리말: 연구의 활성화 방안

1919년 국내에서 전개된 3·1운동은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만세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화성지역의 경우 송산면에서의 일제 순사 처단을 시발로 하여 가열차고 공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3·1운동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적 특징은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로 한국에서는 경기도 안성 원곡 등지에서만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화성지역의 공격의 성격은 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그만큼 심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서울과 인근한 이 지역은 왕실 또는 관청의 재산이 많았고 일제는 이를 토지조사사업이란 명분 하에 수탈해 갔던 것이다. 또한 간척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노동력 착취 및 주민들에 대한 행패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만세운동의 격렬함은 바로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에 기인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민족의식의 고양을 들 수 있다. 화성의 경우 유교적 바탕과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의 노력으로 대다수의 대중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즉 화성지역의 만세운동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민중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에는 힘이 실렸으며 또한 피해 또한 컸던 것이다. 그 결과 일제는 운동영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화성지역의 3·1운동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만세운동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자료들을 집대성한 화성지역 3·1운동 자료집 하나 발간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일제 만행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제암리학살사건 조차도 자료집이나 변변한 학술연구서 하나 없는 형편이다. 기념관의 경우도 세계적인 역사적 항쟁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근현대사 고등학생용 역사책에도 그 위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암리에 대한 사진의 경우도 분명한 고증 없이 실리고 있다.

몇 년 전 1892년부터 1934년까지 42년간 한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미국 북감리교의 아서 노블 선교사의 루안 마티 윌콕스 노블 선교사가 당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육필 일기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원지방 16개 마을과 5개 교회에서 일제에 의해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알려진 29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됐지만 하세가와 총독이 직접 수습에 나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2월 27일에는 1919 년 3·1운동 당시 항쟁지였던 화성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잔학성을 보여주는 미군 정보문서가 발굴됐다. 이중 서울 및 지방 등 국내에서 일어난 일제 탄압 실상에 대한 보고서는 3·1운동 당시 미국 중국주재 무관인 W.S. 드레스데일(Drysdale) 육군중령이 미국 워싱턴 군정보국에 보고한 문서다. 보고문에는 당시 일본의 고베 소재 대학교에서 일본 정부 고용인으로 일했던 이스터브룩(Estabrock)씨가 1919년 7월21일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잔학 행위들'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첨부돼 있다. 14 건의 사례가 담긴 이 보고서에는 제암리 인근의 조그만 마을에서 70대 노파 부부가 보는 앞에서 세 아들과 세 손자를 일본군이 살해한 뒤 마을 사람



발안장터 독립만세 재현

들로 하여금 시신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 기록 내용은 '4월 중순 경 몇몇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함. 노파의 세 아들과 세 손자가 줄에 묶임. 군인들이 이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자, 이 노파는 무릎을 꿇고 살려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목전에서 이들을 살해함. 가장 어린 막내 손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시체를 불태우도록 함' 이다

아울러 2007년에는 1919 년 3 · 1 독립운동 당시 시위 진압에 나선 일본군이 수원 제암리 주민 약 30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공식 명칭은 '조선군') 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을 보여주는 당시 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됐다. 일기의 주인은 3 · 1 운동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 · 1861~1922) 대장. 이번에 발견된 15년분의 일기 등 사료 중에는 독립운동의 진압 실태와 민족운동가에 대한 회유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월 28일 보도했다. 우쓰노미야는 1918년 7월부터 1920년 8월까지 약 2년간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관을 지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화성지역 항일운동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굴할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학계 및 화성에서는 선교사들의 만세운동 및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 일본외무성 등 일본에 있는 일본군의 동향 및 화성지역 3 · 1운동에 대한 보고, 3 · 1운동 직후 국내외 신문에 보도된 화성지역 3 · 1운동에 대한 보도, 일본인 군사령관 등 일본측 고위인사의 회고록, 제암리 학살 군인들의 재판기록, 제암리 한인 학살의 주역 일본인 좌판, 친일파 조화창 등에 대한 일차자료 수집에 보다 힘을 기울여 화성지역 만세운동의 실체가 보다 분명

히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차적 사업으로 「화성지역 3·1운동 자료집」, 「제암리학살사건 자료집」과 「제암리 학살사건 연구」 등의 발간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화성지역 3·1운동사」, 「화성지역 3·1운동 후손 증언록」, 「화성지역 3·1운동 답사기」, 「화성 3·1운동 사전 자료집」 등의 간행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의 보대와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등 기존에 잘못 알려진 내용들에 대한 수정 요구 작업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성 관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한 연구 또한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암리를 비롯하여 고주리, 수촌리, 사강리, 화수리 등 3·1운동 관련 모든 지역의 설역화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도로망의 정비를 비롯하여 여러 일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설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지역의 공원명과 도로명의 작명에 있어서 화성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원 및 기념관 등에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제작하여 전체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화성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 고양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만이 화성지역의 3·1운동의 전체상이 올바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며, 기념관 등도 산교육장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성지역은 제암리뿐만 아니라 사강리, 수촌리, 화수리 등 여러 지역이 3·1운동의 성지와 같은 곳이므로 전국적 규모의 3·1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어 3·1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화성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연구와 연구성과 그리고 3·1운동 유적지 답사록과 증언록의 발간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화성지역 3·1운동의 전체상을 밝히는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화성지역의 3·1운동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3·1운동을 화수리를 중심으로 한 우정 장안지역 3·1운동, 사강을 중심으로 한 송산, 서신, 마도면의 3·1운동과 제암리, 고주리 참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답사 및 증언의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화성지역의 3.1운동 연구

1) 희생중심의 연구-제암리, 수촌리, 고주리

3·1운동의 최대 피해지로서 국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지역으로는 화성시 제암리와 수촌리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그 역사적 사실들이 해외로도 널리 알려져 일본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이곳 제암리는 기독교 감리교신자들이 다

수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의 항일지이자 순교지로서 널리 알려있다. 그 결과 제암리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다. 초창기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홍석창목사를 들 수 있다. 홍목사는 〈수원지방 3·1운동사〉(왕도출판사, 1981)와 〈감리교회와 독립운동〉(에이멘, 1988)를 통하여 화성 및 수원지역의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 특히 제암리지역의 3·1운동에 크게 주목하였다.

김선진은 〈제암 고주리의 3·1운동: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미래문화사, 1983)에서 제암리와 고주리 학살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김선진씨의 연구는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또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선진씨의 연구를 통하여 고주리 학살 사건의 실상부분이 알려지게 되어 일제의 잔악상을 복원시키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현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암리 학살사건을 다루고 있는 점에 일정한 한계를 느끼고 문헌적인 자료를 근거로 치밀하게 이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였다.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수원문화사연구,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이 그것이다.

제암리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이덕주목사의 〈3·1운동과 제암리사건〉(한국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특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증언집으로는 전동례 할머니의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구술 전동례, 편집 김한식, 뿌리깊은 나무, 1981)을 들 수 있다. 일본측 및 서양측 문헌자료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술사는 내면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제암리의 큰말, 넘말, 곡구레미 등에는 학살당한 주민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의 증언 또한 당시 집안의 내력, 집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제전대 큰말에 안경순, 안상용의 후손 안용용, 곡구레미에 김덕용 손자 김명기, 넘말에 김정환의 아들 김원돈, 안종락의 고손 안효남, 안상옥, 안종엽, 안명순, 안관순의 후손 등이 그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제암리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주로 현재 제암리로 알려진 마을의 맞은편에 있는 곡구레미 거주자들이었다. 안종락, 김덕용, 안정옥, 안종엽, 안명순, 안관순, 김정현, 안정유, 안종엽, 안명순, 안관순 등이 그러하다.

앞으로 제암리, 수촌리, 고주리 등에 대한 연구는 종교적인 시각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10년대 이후 일본인의 발안지역 이주와 신척사업 등 이민사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 또한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발안일대에 이주한 일본인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와 촌락사, 이주사, 식민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정, 장안, 오산,



장안 지역 기념비

양감 등지와의 연계성 또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강장, 오산장, 발안장 등 장시와의 연계성 등도 아울러 언급되어야 할 것이며, 화성지역 전체 3·1운동사 차원 및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항쟁 중심의 연구-우정, 장안, 송산

(1) 우정, 장안 지역

우정, 장안지역의 3·1운동에 대하여는 이정은의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 3·1운동」(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1995)에서 처음으로 이에 주목하였다. 이정은씨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새로이 공개한 심문자료(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20)를 바탕으로 이 지역 만세운동을 새롭게 복원하여 개척적 연구를 이루었다. 이정은씨는 본고에서 장안 우정지역의 3·1운동의 배경, 전개, 일제의 대응과 탄압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박환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화성 화수리 3·1항쟁의 역사적 성격」(경기도지역 3·1운동의 특성과 성격, 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 및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주최, 2003. 3)을 발표하였다. 이 논고에서 화수리 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3·1운동 당시 일본 주재소를 파괴전소하고 순사를 처단한 국내 유일의 항쟁지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화수리항쟁은 모든 종교세력이 일치단결하여 이룬 항쟁이라는 특성 또한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불탄 화수리의 모습, 화수리 주재소 평면도, 화수리 주재소 위치도, 우정면사무소, 장안면사무소 도면, 우정, 장안지역 항쟁도, 송산 사강지역 만세운동 등도 발굴하여 화성지역의 만세운동을 보다 생생히 복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산지역 기념탑

(2) 송신, 서신지역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화성지역의 3·1운동의 경우 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제암리 등이 부각된 나머지 화성시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시발점 역할을 하였던 송산면에 대하여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그러나 사실 송산면지역의 만세운동의 경우 3월말 1천 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어난 대대적인 만세시위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본 순사부장을 살해함으로써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는 단계의 운동으로서도 특별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송산면의 3·1운동은 박환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2002년 3월, 화성시주최 3·1운동 학술회의)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고에서 송산면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민족운동의 전통 3·1운동의 전개과정, 주요구성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구성원에서는 학력, 연령, 재산정도, 생활 상태, 종교 등에 대하여도 밝히 보았다. 아울러 일본의 탄압과 송산면 3·1운동의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이 지역의 3·1운동사를 체계화 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수억은 〈화성 서신지역사연구-근대 민족운동과 관련하여-〉(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3년 6월)에서 송산면과 접해 있는 서신지역의 3·1운동, 피해상황과 특구,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3·1운동관련 후손들을 면담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사 연구를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정수억씨는 본고에서 서신지역의 3·1운동은 상안리 이원행, 한곡리 홍성휴, 이제향 그리고 송교리 홍대규 등 유교적 지식인들이 3·1운동을 적극 주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송산, 우정, 장안 등 제암리 이외의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최근 발행된

노블 감리사 부인인 마티 랠럭스 노블의 현장 기록인 〈삼일운동, 그날의 기록〉(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본부, 2001)에 따르면, 송산면 사강리에서 39명이 총살되었고, 326채의 가옥이 불타 1,60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이어 16개 마을에서 학살이 자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 내 또는 다른 5개의 교회가 화를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2. 송산 서신 마도면 주민들의 항쟁 –사감을 중심으로 한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첫째, 송산을 중심으로 한 3·1운동은 오늘날 화성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리적 격리성 등으로 인하여 우정면, 장안면, 팔탄면, 향남면 등의 만세운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있었던 고종의 국장에 참여한 홍효선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일신보 등을 통하여 만세운동 시실을 알았던 홍면옥, 홍준옥, 문상익 등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송송리의 이규선, 미산리의 예종규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제에 의하여 형벌을 받았던 홍면옥은 매우 적극적인 저항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홍면옥이 실제 이상으로 중심인물로서 주로 부각된 측면이 있다. 당시 체포되지 않은 홍효선, 예종규, 이규선 등의 인물에도 비중을 두어야 할듯하다.

셋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송산 사강지역을 중심으로 발발하였으나 그 인근의 서신, 마도 등 여러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한 만세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제는 송산면뿐만 아니라 서신, 마도지역의 마을까지 불지르고 사람들을 검거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사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지식인과 특히 농민주도의 운동으로서 폭력성을 띤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순사부장의 처단은 그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우정면 화수리에서도 주재소 점소 및 일본 순사의 처단이 있었다.

다섯째, 우정면, 장안면 등과 같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송산면은 마산포 등 중요한 항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송신, 서신, 마도 등 여러 지역이 바다와 접해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송산지역의 경우 인천, 인산 등지보다는 수원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탄압 역시 남양주재소, 수원경찰서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는 부농, 중농, 자작 및 소작농 등 다양한 계층이, 연령별로는 10대부터 50대까지, 학력으로는 한문, 신학문, 문맹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만세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송산 일대의 전 주민이 참여한 만세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에서는 종교적인 특색을 크게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우정, 장안 등지가 기독교, 천도교 등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송산지역은 기독교, 천도교의 전도와 포교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였다.

3. 우정 장안지역 주민들의 항쟁-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첫째 화수리 항쟁은 3·1운동 당시 일본 주재소를 파괴전소하고 순사를 처단한 국내 유일의 항쟁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19년 국내에서 만세운동의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측의 〈조선소요사건출례일람표〉에 따르면 만세지역은 총 618개 지역이며 그 중 경기도는 143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소요회수는 폭력적인 경우가 총 332건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76건으로, 비폭력의 경우 516건 가운데 경기도는 1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소요인원의 경우 총 587, 641명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169, 300명으로 제일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일본측의 피해이다. 군대의 경우 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헌병의 경우 6명 사망(평남), 8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 2명 사망(경기도), 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사망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지역으로 우정면 화수리와 송산면 사강리가 바로 그곳이다. 따라서 화성지역의 경우 남한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항일운동 지위가 있던 곳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우정면 화수리의 경우 일본 순사를 처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서 주재소를 방화한 유일한 곳으로 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시 4월 25일까지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楊平, 廣州, 龍山, 成安, 南海 등 5개 군청의 공리상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면사무소 47개소가 파괴 방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전부 파괴된 곳은 19개소이며, 방화는 5곳, 기타는 서류래와 기둥만 남았을 뿐, 전부 파괴되고 서류와 기물도 많이 소실되었다. 아울러 일부 파괴된 곳은 23개소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서의 경우 45개소인데, 경찰서 4곳, 경찰관 주재소 29, 헌병 분대1, 헌병분대 분견소 1, 헌병분견 주재소 10 곳 등이다. 피해상황을 보면 전부 파괴된 곳 16개소, 방화는 1곳이며, 기타는 건물, 기물, 서류 전부가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일부 파괴는 23개소이며, 투석 등에 의해 창유리 벽 등을 파괴하였다.

둘째, 우정 장안 전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만세운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당시 우정 장안 지역의 경우 2천 4백여호이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약간씩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약 2만(X)여명의 참여기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화수리

항쟁은 우정 장안의 전 주민이 참여한 대표적인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석포리, 주곡리, 수촌리 등의 주민들의 중심세력을 형성하였다.

셋째, 화수리항쟁은 모든 종교세력이 일치단결하여 이룬 항쟁이라는 특성 또한 갖고 있다. 석포리, 주곡리 등의 유교, 수촌리의 천도교와 기독교, 잠암리의 일부 천주교 세력 등 다양한 종교세력이 연합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자신의 신앙체계보다도 항일이라는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성향으로 분류하여 3·1운동을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정 장안지역 간도 출병

넷째, 투쟁노선에 있어서 공격적인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1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만세시위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경우 3월 29일 송산면에서도 노구찌 순사를 처단하였으며, 화수리에서도 역시 가와바다순사를 무력으로 처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형태는 만주 러시아지역 무장 투쟁노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만세운동 참여 배경이 화수리 주재소의 탄압, 면사무소의 탄압 등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별히는 이 지역이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간사지 매립에 인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일본인들에 의한 사적인 개간 및 간척 사업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점이 결국 주민들에게 큰불만으로 작용하였으며, 석포리, 수촌리 등의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 석포리, 주곡리 구술원 일대의 일본인에 의한 간척사업, 수촌리 방축동 등지의 간척사업은 주민들에게 큰불만을 야기 시킨 것 같다.

4. 향남 팔탄 양감주민의 항쟁-제암리 고주리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연구방향

제암리 학살사건은 3·1운동 당시 한민족의 저항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사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점은 앞으로 보다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화성의 타 지역



에서 전개되었던 만행에도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일제는 장안면 수촌리, 우정면 화수리, 송산면 등 화성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들을 살상하는 한편 집들을 전소시켰던 것이다. 화성지역의 전체적인 피해사례와 더불어 제암리사건이 언급될 때 보다 입체적으로 만행의 실체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암리 학살사건은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른 피해사례와도 연관 지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919년 중국 길림성 용정지역의 장암동 참변, 1920년 만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경신참변,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신한촌 참변 등은 해외에서 일제가 자행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과의 연관 속에서 언급될 때 일제의 탄압의 실상이 보다 총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암리 사건의 경우 그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나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입장에 따라 달리 서술된 증언내용의 차이와 종교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입장의 차이 등은 이 분야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극복되어 나가야할 부분들이 아닌가 한다.

넷째, 제암리 학살사건은 제암리와 고주리지역의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철저한 보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결국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들이 일제에 강력히 저항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제암리와 고주리지역의 한인희생과 더불어 주민들의 민족의식의 형성과정과 민족운동에 대하여도 초점을 맞추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제암리 학살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이 올바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발안지역의 3·1운동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기대된다. 이 만세운동에는 향남면, 팔탄면, 양감면 등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발안의 3·1운동은 제암리학살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3월 31일 만세시위의 경우 1천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정근의사 등 순국한 인물도 있다. 이 점은 발안지역의 만세운동의 규모와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안지역 만세운동의 경우 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칸척사업의 추진, 금융조합

의 진출 등 일본인의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발안에 진출한 일본인 및 수원지역에 진출한 일본인 및 일본거류민단, 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화성 3·1운동 유적지 답사록 및 증언록 작성의 필요성

화성지역은 최근 급속도로 개발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결과 독립운동의 사적자들도 파괴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촌리지역 만세운동의 상징인 개죽산 인근의 절우도 공단이 들어서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찍이 화성시 3·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를 한바 있다. 그러나 유적지 조사만으로는 3·1운동의 현장을 생생히 보존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한 기록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유적지 답사록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화성지역의 3·1운동연구에 있어서 구술자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에 보이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측 기록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논리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와 관련되는 구술사자료로는 대표적으로 전동례할머니의 증언집인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푸른길은 나무, 1981)과 김선진의 저서인 「제암 고주리의 3·1운동」(미래문화사, 1983)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제암리 학살사건시 순국한 안진순의 부인 전동례 할머니의 사신에 대한 생생한 증언록이다. 제암리 학살에 대하여는 언더우드 등 선교사 기록, 외국기자들의 기록, 당시 생존한 한 젊은이의 기록 등 여러 기록이 있으나 전동례의 증언은 남편을 잃은 부인의 입장에서 집안 내력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1970년대 이루어진 증언이라는 단점이 있다.

한편 화성지역의 3·1운동을 올바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화성시 송산면의 경우 문삼익, 홍면옥, 홍관후 등 여러 지사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당시 집안 형편, 가계, 재산정도, 친인척 관계, 신분 등 보다 다양한 내용에 접근 할 수 있다. 또한 제암리의 경우 김덕용의 손자 김명기, 김정헌의 아들 김원돈, 안경순 안상용의 후손 안용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우정면의 경우 김종학의 손자 김영실, 김현방의 손자 김진세, 장안면의 경우 양순서 손자 양창화, 차병한의 손자 차진갑, 백낙일의 손자 백병기, 백순익의 아들 백상기, 김용식의 손자 김재명 등이, 팔탄면에는 김세열의 손자 김홍배이 살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화성 3·1운동 증언자료집』의 간행을 기대하고 있다.

융릉 · 건릉, 용주사 체험학습을 마치고

엄희수
병점중학교 1학년 9반 30번

향토연구반에 방문교사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방문교사와 수업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 조금 어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차츰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다. 역사에 대해 지식이 없는 나는 선생님(방문)이 하시는 말이 십지 만은 않았다.
조금씩 지나니까 아는 것이 많아져 대답하기도, 듣기도 재미있었다. 수업을 듣고나니 융 · 건릉에 대한 지식도 많아진 것 같다.

먼저 용주사의 유래에 대해서 배웠다.
용주사의 이름은 정조가 꿈속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간 꿈을 꾸어 이름이 붙여졌다.
합장릉이란 왕과 왕비가 같이 묻힌 무덤이라 한다.
융 · 건릉은 융릉과 건릉이 있다.
융릉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묻힌 곳이고 건릉은 정조와 효의선왕후가 묻힌 곳이다.
용주사는 효의 근본 사찰이라고 한다. 사도세자의 능인 현륭원의 원찰.
용주사엔 삼문이 있다. 삼문은 절의 첫 입구의 일주문을 지나 독특한 형태의 두 번째 관문인 삼문은 좌우에 금행랑을 지니고 맞배 지붕이고 사원 · 사당에만 있다.

선생님은 컴퓨터 영상, 칠판에 그림, 직접 써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빠르고 귀에 잘 들어왔던 것 같다.
처음에는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업이 재미있어 졌다. 다음에도 방문교사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손은향
병점중학교 1학년 9반 28번

우리 학교에 계시던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조금씩 불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방문을 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리낌 없이 대해 주시고 질문 하나하나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만나 선생님이시지만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수업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유래라든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융릉·건릉에 대하여

융릉은 장조(추존)와 헌경의황후의 릉이고 건릉은 정조(22대)대왕과 효의 선황후의 합장릉이다. 무덤의 종류에는 단릉, 합장릉, 동원이강릉, 삼연릉이 있는데 단릉은 가장 기본적인 릉으로 한 곡장에 한 봉분만 있는 형태이다.

합장릉은 하나의 능에 두 분이 있고, 동원이강릉은 정자각 하나에 사초지가 두 개이고 능도 두 개다. 삼연릉은 한 곡장 안에 능이 나란히 3개가 있다.

융릉·건릉 입구의 문이 왜 빨간색일까? 예로부터 빨간색이 악귀를 쫓는 색이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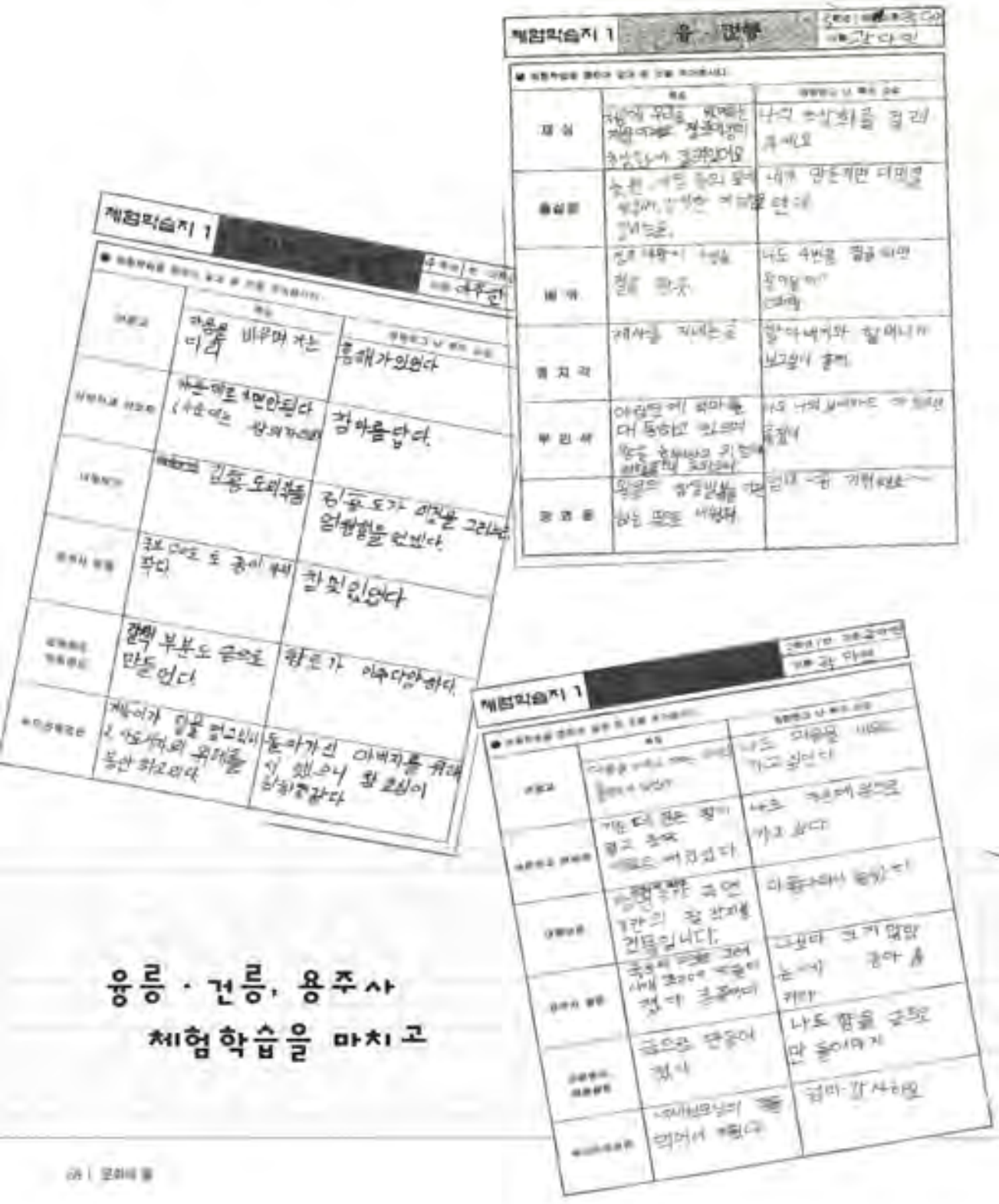
용주사에 대하여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창건된 갈양사 옛 터에 지어졌으며 사도세자의 능인 현륭원의 원찰로 효의 근본 사찰이다.

제22대 왕인 정조대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이어서 절의 이름을 용주사라고 지었다고 한다.

삼문에 대하여

절의 첫 입구의 일주문을 지나 독특한 형태의 두 번째 관문이다.



융릉 · 건릉, 용주사 체험학습을 마치고




체험학습지 2
용 건물


체험학습지 2
용 건물


保天樓

유교는 아시아의 힘



아시아 문명의 핵심인 유교를 오늘의 자산으로 되살린다

이 책은 KBS방송 다큐멘터리팀 인사이트아시아 제작자와 전문 연구자들이 협작으로 동양사상-그중에서도 유교 문제에 파고들어 내놓은 고도의 지적 성과물이다. 작년 5월, 3회에 걸친 방영을 위해 1년 반의 제작기간 동안 유교, 중국, 일본, 한국 역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2,500여 년 유교 역사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이르는 유교문명권 지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조사와 토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러티브를 구성해 갔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발굴과 자료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책은 이를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다.

책은 시간 매체이자 영상 매체인 TV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와 깊이 있는 해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방송과 동시에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번 작업은 한번 전파를 타고 흘러버리면 그만이었던 방송 매체



공자상

가 고급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출판을 통해 형성해가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세계의 석학들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했으며, 유교야말로 인류를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첨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를 지배해온 유교가 부끄럽고 버려야 할 시대착오적 사상이 아닌 탐구하고 궁구해 재발견해야 할 인류의 유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부터 '유교 2500년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2,500여 년을 이어온 문명의 토대로서 유교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현대적 의미로서의 고찰은 크게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仁, 즉 인간의 길로서 '유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둘째는 義, 경제의 길로서 '유교는 경제를 어떻게 보았고, 경제를 추구함에 있어 무엇을 가장 중시했는가',





병산서원 추향사제

셋째는 體, 관계의 길로서 '유교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이 갈등과 증오 없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

넷째는 習, 공부의 길로서 '유교는 배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였다.

'인의예지' 로 상징되는 유교의 핵심 가치들의 창조적 재해석 · 재탄생 가능성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아시아적 가치의 재발견과 이를 화해와 번영으로 이끌 공통의 중심 가치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관점에서의 어려운 유교가 아닌 아시아인들의 실제적 삶속에 살아 숨 쉬는 유교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통해, 어렵고 딱딱하며 추상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던 유교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대응한다면 현대문명을 이끌어갈 충분한 힘을 지닌 가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탐구는 유교를 재조명하고,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며,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영찬 조지메이슨대학교 비교종교학과 교수는 "이 책은 단순히 유교의 가치관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가치로서의



현대 교육의 새로운 대안 논어수업. 현재 북경에는 논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100여 개가 넘는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활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다. 이 책은 한 · 중 ·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유교 문화에서 찾고 있다. 실리를 추구함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의義의 정신이 바로 성공코드였던 것이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세계적인 CEO들 역시 유교의 인본주의적 경영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변화된 세계와 경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빚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라고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상관성으로 알아본 풍수의 신비

풍수의 이치는 땅을 인간의 어머니로 간주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인 풍수에선 땅에 인간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곧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다. 예로부터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지모신(地母神)이 숭상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땅에 생명력을 부여한 풍수의 목적은, 땅이 지닌 모성의 영향력과 인간 사이의 상관성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땅과 인간이 감응(感應)하는 기(氣)의 흐름이 인간의 길흉(吉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기의 흐름을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흉한 기는 모두 물리치고, 좋은 기를 순환시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지혜가 바로 풍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수의 개념은 웰빙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부쩍 참선(參禪), 단전호흡, 뇌호흡 등 기(氣)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사실 기는 오래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다. 실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의 영향권에서 기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 '기분이 나쁘다', '기운이 없다', '기가 빠졌다', '기력이 쇠하다', '기가 막힌다', '생기가 없다' 등 일상생활에서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풍수적 기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

기는 인간의 성격과 재능, 행동 양식 등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영혼은 수태의 순간 자궁 속으로 들어가 태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태아의 몸속을 흐르는 기는 아이의 성격과 지능, 성장과 습성, 정신 상태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풍수와 관련된 기의 영향력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 과학으로 의문이 풀리지 않는 '쌍둥이 마을'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전남 여천군의 자연 부락으로 전체 75가구 중 35가구에서 38쌍의 쌍둥이를 낳아,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쌍둥이 다출산'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마을이다.

서울의 한 의대에서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마을의 우물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75가구 중 35가구만 '쌍둥이 출산'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렇지만 '쌍둥이 마을'의 의문은 풍수적으로 접근할 때 간단하게 풀린다. 쌍둥이를 낳은 35가구의 부엌들이 한결같이 쌍태산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들이 일을 많이 하는 장소의 방향이 일치하면서, 무려 35가구에서 쌍둥이를 상징하는 쌍태산의 기를 받아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풍수의 신비는 자연과 인간의 기운이 유기적인 상관성을 가질 때 그에 합당한 기운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기운이 나타나는 방법과 모습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의 판단으로 경기도 화성은 풍수적으로 주목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풍수지리서인 『택리지』에 의하면 수원(정조가 화성을 축성하기 이전 화성군의 이름)은 예로부터 농·상업의 발달과 물자 교역이 활발했던 곳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친 정조 임금은 임금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길 것을 계획했으며, 그 장소가 바로 화성(華城)이었다.

풍수적으로 훌륭한 길지인데도 아직 화성이 꽃을 피우지 못한 이유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되면서 풍수적으로 음(陰)의 기운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음양은 교차되므로, 음의 기운이 물러가는 동시에 양(陽)의 기운이 성대하게 살아나면서 '꽃의 고을'이라는 '화성'의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찬란한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정조 임금의 효성 지극한 마음으로 기록한 "사람이 원하는 일은 하늘이 들어주는 것이다"는 글귀처럼, 화성의 기운은 곧 하늘을 감복시킬 것이다.

필자 | 이상인
홍익대 건축학과와 방송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풍수학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향신문에 풍수 인테리어를 연재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풍수 인테리어를 강연하였으며, 현재 레이디경향, 경향신문 등에서 풍수와 운세 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이다.
저서로는 『이상인의 다시 쓰는 토정비결』, 『여성을 위한 토정비결』, 『이상인의 운명예언서』, 『행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등이 있다.

회원회비 납부현황

문화원 회비 및 후원금을
내주신분께 감사 드립니다.

임원회비

모보환	400,000원	고정석	400,000원
차진규	400,000원	권인호	400,000원

회원회비

김용학	120,000원	송수덕	80,000원	이정자	20,000원
김철중	120,000원	김경길	60,000원	임동규	20,000원
김형중	120,000원	이득림	60,000원	정찬원	20,000원
박준서	120,000원	장석훈	60,000원	채명희	20,000원
성돌자	120,000원	이점구	50,000원	최경순	20,000원
오준환	120,000원	박종유	40,000원	최서열	20,000원
이도형	120,000원	권태경	30,000원	최명화	20,000원
이승용	120,000원	김만순	30,000원	최정자	20,000원
이자영	120,000원	남관우	30,000원	최한신	20,000원
장대천	120,000원	박광현	30,000원	이태규	20,000원
김은자	120,000원	신완교	30,000원	박금준	20,000원
백기업	100,000원	윤현자	30,000원	김연순	10,000원
권태석	90,000원	임명기	30,000원	김용환	10,000원
김금자	90,000원	김효숙	30,000원	신진우	10,000원
김명숙	90,000원	박귀염	30,000원	안미경	10,000원
김자봉	90,000원	서예단	30,000원	이진환	10,000원
류재호	90,000원	고영익	20,000원	이춘우	10,000원
유귀녀	90,000원	박계원	20,000원	정애경	10,000원
이수연	90,000원	박상순	20,000원	정진현	10,000원
최영구	90,000원	이말순	20,000원	최석근	10,000원
한정부	90,000원	이선숙	20,000원		
김월규	80,000원	이옥희	20,000원		

후원금

이상만	1구좌	김재문	5구좌
홍은수	10구좌	창커뮤니케이션	30구좌
정인자	10구좌		

재)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우 445-97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장리 산4-4
TEL 031-366-3630~1 FAX 031-366-3633
www.hstree.org



이 학생들은 화성시 장학생 (기명됩니다)

時代를 향한 이유 있는 投資!!
"인재육성 화성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여러분의 이유 있는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 잘 키운 인재 한명이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 우리 화성시에도 달성부론 맥밥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인재 Data Base를 만나보세요!
- 리스크가 적고 회수율이 높은 이유 있는 투자!
- 화성시청에게 투자하세요!!





'사막의 마법사', 혹 불리는 지도자. 두바이의 기적을 창조한 세이크 모하메드(UAE 부통령 겸 총리)

"우리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 지식 · 기술 상점에 무지해도로써 장기적인 관점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세계는 나라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세계의 국제 기구들은 힘의원 없이, 우리가 진행하는 기획과 발전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재를 결정하는 방식, 리더십 플레이어가 되려는 주인력에 대해 배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장 환경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 그는 방한 직전 요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동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00억달러(약 9조3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겠다" 고 밝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후원문의 031-366-3630~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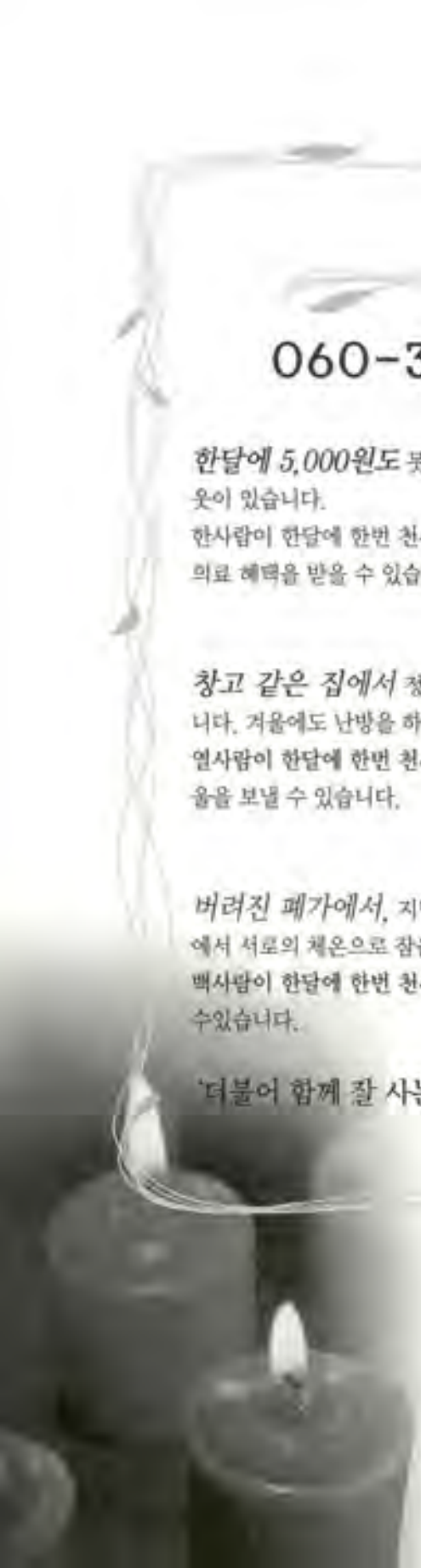
060-300-1479 (천사친구)

한달에 5,000원도 못되는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웃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주시면 1년에 5명의 어려운 이웃이 정성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같은 집에서 정신장애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학교 1학년 소녀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해 교회나 마을 회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면 한가정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버려진 폐가에서, 지병으로 거동조차 못하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남매가 방 한칸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잠을 청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백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면 열명의 난치병 환우에게 희망을 줄 수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 그 속에 우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 걸음을 옮기는 것보다도,
우리 화성시 시민 모두가 한걸음씩만
같이 한다면 40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화성문화원은 우리 생활 속의 문화를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곳입니다

회원이 되시려면

화성문화원의 활동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문화의 뜰은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문화의 마당입니다. 회비는 월 10,000원(1구좌)이며 이회비는 내고장 화성의 문화발전에 쓰여집니다.

회원이 되시면

문화원의 각종 간행물을 우선 받아 볼 수 있으며 전시회 및 각종 행사시 우선 초대됩니다. 또한 문화원 보유자료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가입방법은 화성문화원 사무국으로 직접 내원하시거나 아래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시고 본원으로 인적사항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170817-51-008268
(예금주: 화성문화원)

화성문화원에서 하는일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사사 · 백서 · 협회보 · EI · 팜플릿
똑 소리나게 잘 만드는 회사 창커뮤니케이션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성공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편집회사 창커뮤니케이션.
고객의 말씀에 가장 알맞는 모습을 찾을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성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금쪽같이 여기겠습니다.
모든 낭비요소를 완전 제거하여 고객중심의
단순하고 강력한 프로세스를 구축,
고객이익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서울시의회 수도이전 반대 백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백서



서울대 외교학과 50년사



서울대 화학과 60년사



SJM 3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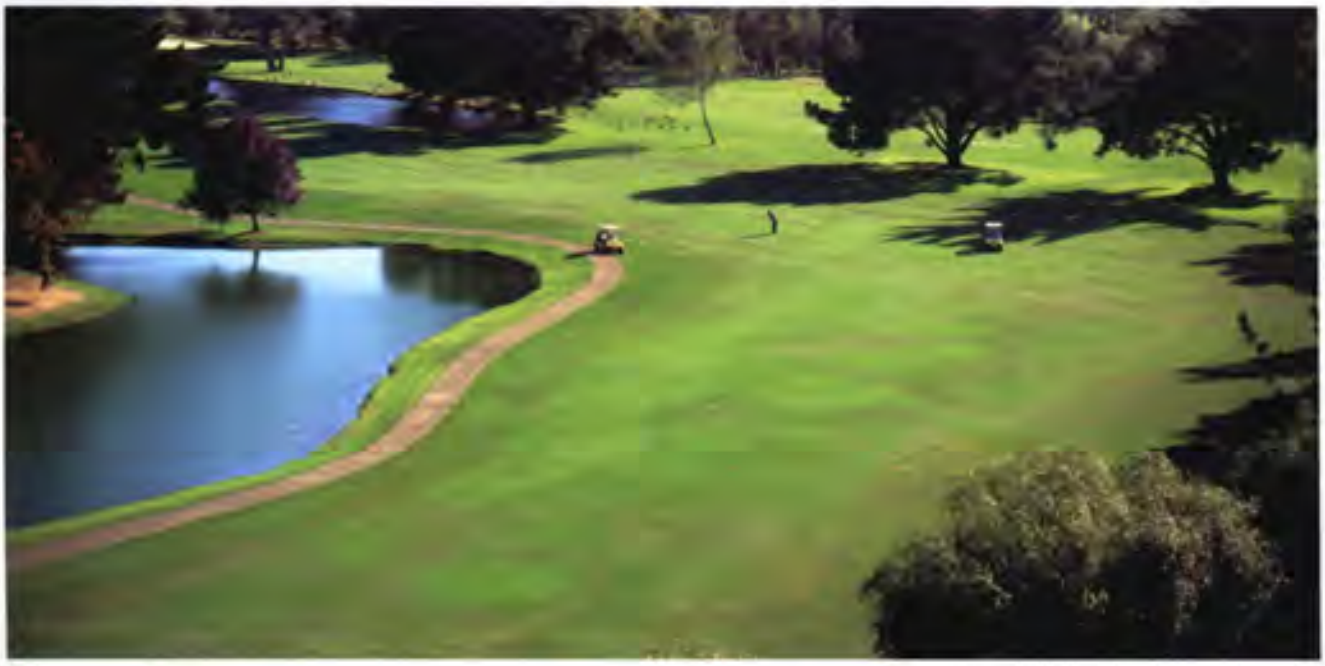


풍한개발 30년사

창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205-7 서림빌딩 901호 전화. 02)333-1967 팩스. 02)333-1961 www.hichang.co.kr

Best Life Partner

KYOBO 교보생명



만남, 사랑... 그리고 행복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가족사랑을 위한 **종신보험**

행복한 가정을 위한 **CI보험**



화성FP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평리 81-70 중앙빌딩 4층

TEL : 031 354-5706 / FAX : 031 354-5846

H.P: **010-2782-7000**

Financial Planner **우 호 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004년 고객만족경영

5년연속 大賞 명예의 전당 헌정

교보생명 CALL센터 1588-1001

교보생명은 고객이 소중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